

放送 言語의 發音 檢討

- 連音, 硬音

許 椿*

목 차

- I. 序 論
- II. 連 音
- III. 硬 音
- IV. 結 論
- 參 考 文 獻

I. 序 論

언론 매체의 우리말글은 국민들의 언어 생활을 좌우한다. 강단이나 서책을 통해 백 번 외쳐도 방송에서 한마디 하면 그것으로 고정된다. 국민들은 대체로 신문의 표기, 아나운서(announcer)나 성우의 발음, 티브이(TV)의 자막 등을 의심 없이 믿는 경향이 있다. 드라마(drama)나 코미디(comedy)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program)은 그 영향이 더더욱 지대하다. 좋은 교사가-우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리말 발음에 정통한 교사는 매우 적은 실정이지만-아무리 정확히 가르쳐도 아나운서나 연예인 한 사람이 틀리게 해 버리면 그것으로 굳어지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지금의 언론 매체는 용어, 발음, 표기법, 외래어, 문장 부호, 문장 등 여러 면에서 우리말글을 醇化하기는커녕 오히려 惡化를 선도한다고까지 할 만한 상황이다. 방송의 바른 발음은 곧 보도의 신뢰성과도 직결되는데, 우리말을 바르게 쓰지 못하는 정도가 너무 심한 상황이다. 방송에 한해 보면, 갈수록 연예인 같은, 언어 훈련을 받지 못한 비전문인들의 출연 비중이 높아져 가는 탓도 있을 것이다. 전문 방송인보다 연예인의 말버릇이 언중에게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크니 더 걱정스럽다. 이들이 언중-특히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데, 이 점은 작가나 피디(PD)와 연관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따라서 연예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이들이 출연하는 드라마도 일부 포함하였다. 지역 특유의 발음을 교정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대로 전국 방송에 출연하는 방송 종사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반성과 함께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그 구체적인 예를 적시할 것이니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는다.

발음은 더욱 심해서 우리에게 표준 발음의 척도로 삼을 만한 것이 있는지도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표준 발음법'과 현실음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발음 표기는 사전마다 서로 다른 실정이다. 바른 우리말 발음 정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 아니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1993년에 한국방송공사(KBS)에서 「표준 한국어발음대사전」(이하 「KBS」)을 펴냈으나 여타의 사전과 다르거나 '표준 발음법'에 어긋나는 발음도 많고, 방송인들도 별로 지키지 않는 듯하다. NHK(일본)나 BBC(영국) 같은 위상을 KBS가 가지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억양은 너무恣意的이고 심지어 파괴적인 실정이라서 일일이 예거할 수 없을 지경이다. 전파력과 호소력이 막대한, 공익 광고를 위시한 각종 광고나 캠페인(campaign)의 발음 또한 시정이 시급하다. 성우의 틀린 발음과 공익 광고의 오류는 놀라운 일이다. 전문가인 성우나 아나운서까지 틀리게 발음하면 문제는 썩 심각해진다.

이러한 상황은 실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론적인 논의는 깊게 하지 않겠다. 언론 매체를 주의 깊게 보고 듣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 방송 언어 점검은 신문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게다가 발음에 이견이 적지 않고, 표준으로 삼을 만한 발음 사전도 마땅찮다. 그래서인지 우리말 발음에 대한 논문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우선 방송 언어의 여러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반성과 관심을 촉구하

고, 발음 규정의 문제점도 아울러 지적하려 한다. 보여도 들려도 괴로운, 우리 말글의 혼돈 상태를 점점하는 첫 단계로, 이 글에서는 먼저 발음의 혼란상을 제시하겠다. 정서법이나 문장(어휘)보다 관심이 덜한 분야가 바로 발음법이기 때문이다. 문학을 전공하는 필자가 이 일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20여 년간 언론 매체에 관심을 가지고 본 결과, 이제는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함과 함께, 이론 논의에만 매달려 실제-특히 음성 언어-에 무관심한 이들과 언론 종사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이다.

앞서 필자는 언론 매체에서 범하는 발음의 오류(받침, 모음, 동화, 첨가), '표준 발음법'의 미비점, 국어 사전마다 상이한 발음 표기 등을 논의한 바 있다¹⁾. 이 글에서는 우리말 발음 중 連音, 硬音을 검토하겠다. 지면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우리말의 고저, 장단, 억양, 속도, 외래어의 발음, 잘못된 어휘 사용에 따른 발음상의 오류 등은 별도로 논하겠다.

어떤 일이든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틀렸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연히 틀린 말을 위주로 서술하였다. 공중과 방송을 대상으로 했는데, 특정 방송이나 특정 프로그램이 많은 것은 중요도와 무관하고 순전히 필자의 개인 사정 때문이다. 제주 지역의 예가 많은 것도 그렇다. 특히 라디오의 청소년 대상 심야 프로그램은 진행자나 초대 출연자의 언어 구사에 문제가 많으나, 자세히 들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 프로그램이 연속되므로 자정이 넘은 경우도 방송 날짜 표시는 다음날로 하지 않았다.

필자 나름대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만의 하나라도 필자가 스쳐 들은 게 있을까 조심스럽다. 그러나 (시)청자(필자) 귀에 그렇게 들렸으면 그 자신이 어떻게 의도하고 발음했나 하는 점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실수라고 판단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조사 분량이 너무나 많아서 다 들 수는 없고 극히 일부만 보였으나, 많이 틀리는 말은 그만큼 많은 예를 들었다. 실명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채널(channel), 날짜, 프로그램, 방송 지역(지역일 경우)과 함께, 확인한 경우, 성의 첫 자음과 직업을 표시하였고, 혹 성명 미확인시나 필요시에는 성별을 밝혔다. 경각심을 촉구하는 뜻이다. 번거로움을 피해 방송 시간은 가능한 한 생략하였으나 필요시 10분 단위를 원칙으로 하였다.

발음 표기는,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국제음성기호나 음운 표기를 하지 않고 [] 속에 한글로 적었다. 되도록 최근 2~3년간의 예를 들되, 1988년 이전의

1) 許棫, 『放送 言語의 諸問題-發音의 混亂相』,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 연구』 제6집, 2000. '서론'과 '결론'은 이 글을 바탕으로 했으며, 인용 표시는 따로 하지 않는다.

에는, 지금도 규정에 변동이 없으면서 틀린 경우를 보일 필요가 있을 때만 간혹 보였다. 이 중 1980년에 조사한 것은 2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일 것이다. 혼동하기 쉽거나 논란이 있는 경우는 바른 발음을 따로 제시하였다.

II. 連 音

‘큰일([큰닐]/[크닐])’ 처럼 연음 여부에 따라 뜻까지 달라질 정도로, 우리말 발음에서 음의 첨가·연음 여부는 중요하다. 음을 첨가해야 할 때 연음하는 것은 무지요, 특히 방송인으로서의 직무 유기인데, 그 반대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는 잘못된 습관 때문이기도 하며 지역 방언과도 무관하지 않다. 여기에서는 그릇된 연음에 초점을 맞추어 잘 틀리는 예를 몇 개 들어서 바른 발음을 제시하겠다.

음을 첨가했을 때 틀리는 말은 곧 연음하는 말이므로, ‘표준 발음법’에서 음의 첨가를 규정한 조항(제29·30항)과 연음시 특히 유의할 조항(제11·12·13·14·15·17·18항-필자 임의로 줄임)만을 보인다.

제11항 겹받침 ‘ㄹ, ㅍ, ㅊ’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예:닭 [닥], 흙파 [혹파] 등).

다만, 용언의 어간 발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예:맡게[맡게], 얼거나 [얼거나] 등).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1. ‘ㅎ(ㅏ, ㅑ)’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ㄱ, ㄷ, ㅈ]으로 발음한다.

[붙임 1] 받침 ‘ㄱ(ㄱ), ㄷ, ㅈ(ㅈ), ㅈ(ㅈ)’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음을 합쳐서 [ㄱ, ㄷ, ㅈ]으로 발음한다(예:각하[가카], 만형[마형], 좁히다[조피다] 등).

[붙임 2] 규정에 따라 ‘ㄷ’으로 발음되는 ‘ㅅ, ㅆ, ㅌ’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낮 한때[나탄때], 옷 한 벌[오탄벌] 등).

제13항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꽃을[꼬출], 밭에 [바테], 쫓아[쫓차] 등).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엎

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예: 값울[갑쓸], 굶이[골씨], 닭을[달글] 등).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꽃 위 [꼬위], 늪 앞[느밭], 밭 아래[바다래] 등).

다만, '맛있다, 멋있다'는 [마신타], [머신타]로도 발음할 수 있다.

[붙임] 겹받침의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값어치[가버치], 값있는[가빈는] 등).

제17항 받침 'ㄷ, ㅌ(ㅊ)'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스, ㅈ]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밭이[바치], 벼홀이[벼홀치] 등).

제18항 받침 'ㄱ(ㄲ, ㅋ, ㆁ, ㄷ, ㄷ(ㅌ), ㅌ(ㅊ), ㅂ(ㅃ, ㅍ, ㅍ, ㅍ, ㅍ)'은 'ㄴ, ㄹ'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붙임]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값 매기다[감매기다], 옷 맞추다[온마추다], 흥 말리다[홍말리다] 등).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숨-이불[숨:니불]	홀-이불[혼니불]	막-일[망닐]
삿-일[상닐]	맨-입[맨닐]	꽃-잎[곤닐]
내복-약[내:봉냐]	한-여름[한너름]	남존-여비[남존녀비]
신-여성[신녀성]	색-연필[생년필]	직행-열차[지깡열차]
늑막-염[늑망념]	콩-엿[콩년]	담-요[담:뇨]
눈-요기[눈뇨기]	영업-용[영업농]	식용-유[사공뉴]
국민-윤리[궁민눌리]	밤-웃[밤:논]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ㄴ'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

이죽-이죽[이중니죽/이주기죽]	야금-야금[야금냐금/야그야금]
검열[검:녘/거:멸]	올랑-올랑[올랑놀랑/올랑올랑]
금용[금농/그똥]	

[붙임 1]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음은 [ㄹ]로 발음한다.

들-일[들:릴]	술-잎[술립]	설-익다[설릭따]
물-약[물략]	불-여우[불려우]	서울-역[서울력]
물-엿[물련]	휘발-유[휘발류]	유들-유들[유들류들]

[붙임 2]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한 일[한닐]	웃 입다[온납따]	서른여섯[서른녀설]
3 연대[삼년대]	먹은 옛[머근닐]	
할 일[할릴]	잘 입다[잘립따]	스물여섯[스물려설]
1 연대[일련대]	먹을 옛[머글릴]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는 ‘ㄴ(ㄹ)’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
 6·25[유기오] 3·1절[사밀쩨] 송별 - 연[송:벼련]
 등용 - 문^ㄹ[등용문]

제30항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1.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넷가[내:까/낱:까]	셋길[새:길/쌔:길]	빨랫돌[빨래돌/빨랠돌]
콧등[코뜨/콘뜨]	깃발[기빨/긴빨]	대팻밥[대:패뵤/대:괘뵤]
햇살[해쌀/헐쌀]	뱃속[배쑥/뵤쑥]	뱃전[배쩨/뵤쩨]
고갯짓[고개쩨/고괘쩨]		

2. 사이시옷 뒤에 ‘ㄴ, ㄹ’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콧날 [콘날 → 콘날]	아랫니[아랜니 → 아랜니]
뿔마루[뵤마루 → 뵤마루]	뱃머리[뵤머리 → 뵤머리]

3. 사이시옷 뒤에 ‘이’ 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니]으로 발음한다.

베갯잇[베갸닐 → 베갸닐]	깨잎[괘닐 → 꺼닐]
나뭇잎[나문닐 → 나문닐]	도리깨열[도리괘닐 → 도리괘닐]
뿔[뵤:눈 → 뵤:눈]	

① **갈 일 · 넘겼던 일 · 쉬운 일 등** :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이므로 당연히 음이 첨가되어야 한다(‘표준 발음법’ 제29항 붙임2(이하 항 표 시만 함)). 그런데도 연습하고 있는 풍조는 빨리 고쳐야 한다. 어찌된 일인지 이 부분은 일반인보다 전문 방송인이 더 많이 틀리는 것 같다.

“어디 갈 일[가:릴]이 있을까?” (00.8.21. K1TV ‘아름다운 실버’ 해설 ㅎ 성우, [갈릴]이라야 한다.)

“어렵게 고비를 넘겼던 일[넘겨떠닐] ---” (00.7.6. K1TV ‘아침 마당’ 공동 진행 ㅇ 아나운서, [넘겨떠닐]이라야 한다.)

“--- 쉬운 일[쉬우닐]이 아닌---” (00.5.20. K1TV 뉴스9 ㄱ 공동 앵커

(anchor)(남), [쉬:은닐]이러야 한다.)

② (제)값을 : “---제값을[갑쓸] 받지 못하고 ---” (00.4.28.09:40 K1TV 제주 뉴스 ○ 아나운서(여), [갑쓸]이 옳은 발음이지만, 연음은 잘 했다.)

“--- 때 놓치면 제값을[가블] 받지 못하기도 하고 ---” (00.7.2. MBC TV 극 ‘전원일기’ 김 회장 둘째 아들 역의 ○ 탤런트(talent), [갑쓸]이러야 맞다. 비교적 발음이 정확한 탤런트인데도 사소한 데서 오류가 많다. 주의와 노력을 촉구한다.)

“제값을[가블] 받게 되어 ---” (00.10.11. MBC R ‘제주 비전 열린 이야기’ 공동 진행 ㅎ 아나운서(남))

③ 공염불(空念佛) : “--- 공염불로 그쳤습니다.” (99.11.7.21:00 K1TV 뉴스9 중요 뉴스 소개 ㄱ 아나운서(남), [공념불]이러야 맞다.)

④ 길 잃은 : 가수 ㅈ 씨의 노래에 ‘길 잃은 철새’라는 대목이 있는데, [기리른]이라 불렀다. [길리른]이러야 하는데 왜 연음을 하는가 모를 일이다. 일반인에게 영향이 절대적이라고까지 할 대중 가요의 잘못된 발음은 정말 수없이 많아서 별고로 논할 생각이다.

“--- 길 잃은[기리른] 윤락녀들은 ---” (00.10.22. SBS TV ‘뉴스 추적’ ㄱ 기자)

“--- 조난자나 길 잃은[기리른] 등반자를 ---” (01.1.21. K2TV ‘VJ 특공대’ 해설 ㅂ 성우(남))

⑤ 김 양(嬢)·변 양(嬢)·임 양(嬢)·정 양(嬢) 등 : “숨진 김 양[기망]이 어제 오전 ---” (00.12.11. K2TV ‘뉴스 파노라마’ ㄱ 기자(남))

“변 양[변:냥] 같은 학생들이 ---” (00.7.29.23:00 K1TV 뉴스 ㅎ 기자, 姓이 ‘邊’인지 ‘卞’인지 불명이나 길게 발음했으니 ‘卞’ 씨일 터인데, ‘김 양[김냥]’인 것처럼, [변:냥]이러야 한다.)

“--- 동반 자살을 하자는 말은 심 양(嬢)[시:망]이 먼저 꺼냈습니다.” (01.2.6 MBC TV ‘뉴스 데스크’ ○ 기자(남))

“임 양[이망]으로부터 ---” (00.7.20.10:00 MBC R 뉴스 ㄱ 아나운서(남), ‘임’을 짧게 했으니 ‘任’은 아니고 ‘林’일 텐데, [임냥]이러야 한다. 조사 ‘으로부터’의 오용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논한다.)

“임 양[이망]과 함께 ---, 정 양[정양]의 말이 ---” (00.10.22. SBS TV ‘뉴스 추적’ ○ 기자)

⑥ 김 이사(理事)·박 여사(女史) : ‘김 양(嬢)’처럼 첨가되어 [김니사], [방녀사]라야 옳은데, 그대로 연음해서 [기미사], [박겨사]라 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표준 발음법’에 이런 단어를 예로 명시하든지, 발음법 조항을 좀더 자세히

할 필요가 있다. 아니 시급하다. 그리고 방송인은 특히 바른 발음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해야 한다.

- ⑦ **까닭이(죠)** : “--- 연기를 보여준 까닭이죠[까다기죠].” (00.10.14. MBC TV ‘피자의 아침’의 ‘할리웃 통신’ 리포터(reporter)(여), 방송 리포터 선정의 첫째 조건은 발음이라야 할 것이다. ‘할리웃(Hollywood)’은 ‘할리우드’라야 맞다.)
 “--- 까닭이[까다기] ---” (00.10.24. MBC TV ‘PD 수첩’ ㄹ PD)
- ⑧ **난방유(媛房油)** : “올 가을 난방유[난:방유] 부족에 대한 ---” (00.9.21.12:10 MBC R 뉴스 베를린=스 특파원, [난:방뉴]라야 옳다(제29항 붙임2).)
- ⑨ **낮 한때** : ‘웃 한 별[오탄별], 술하다[수타다]’처럼 ‘낮 한때’는 [나탄때]로 발음해야 한다(제12항1. 붙임2). 끊어 읽거나 ‘ㅎ’ 음을 생략하는 발음은 잘못된 것이다.
 “낮 한때[날 한때]” (00.7.8.09:40 MBC TV ‘뉴스 데스크’ 전주 뉴스 ㄱ 앵커 (아나운서, 여))
- ⑩ **눈여겨** : “(이번 파업에서) 눈여겨[누너겨] 볼 게 ---” (00.7.11. MBC TV ‘뉴스 데스크’ ㅇ 공동 앵커(남), [눈너겨]라야 옳다.)
 “눈여겨[누너겨] 볼 만하죠?” (00.9.28.19:10 K1TV ‘2000 시드니 올림픽’ 태권도 경기 중계 아나운서(남))
- ⑪ **닭(雞)은 흙(土)에** : 그대로 연음하여 [달근], [흙게] 라면 되는데 흔히 [다근], [흐게] 라고 틀리게 발음한다. 무관심과 무지 탓이다.
 “--- 이들이 판 닭은[다근] ---” (98.12.19. MBC TV ‘경제 매거진’ ㅇ 기자)
 “오:리와 닭을[다글] ---” (00.10.30.12:10 MBC R 뉴스 ㄱ 아나운서(남))
 “--- 사마귀는 흙으로[흐그로] 사라지거나---” (99.1.5. EBS TV ‘숲 속의 작은 제왕 사마귀’ 해설 ㄱ 성우, 00.7.4. K2TV ‘마이 웨이’ 해설 ㄱ 성우)
 “--- 왕성한 이유는 흙에[흐게] 있었다. --- 흙과[혹과], 흙이[호기], 흙을[흐글] ---” (00.6.5. K1TV ‘양코르 환경스페셜’ (재) ㄱ 성우, 이 성우는 연음을 너무 못한다. 노력 바란다. ‘혹과[혹과]’는 [혹파]라야 한다(제11항).)
- ⑫ **덜 익다** : “일부 덜 익은[더러근] 햇과일---” (00.8.23. K1TV 뉴스9 ㅇ 기자, ‘① 갈 일’과 같은 경우로 [덜:리근]이라야 한다.)
 “덜 익은[더:리근] 미숙 감귤이 출하되고 ---” (00.10.4.17:00 MBC R 제주 뉴스 ㅎ 아나운서(남), ‘미숙 감귤’이 곧 ‘덜 익은 감귤’이다.)
 “옛날엔 덜 익은[더:리근] 땡감을 ---” (00.12.23.08:50 MBC TV ‘TV 속의 TV’ 중 ‘이운철의 옛날 TV’ ㅇ 아나운서(남))
- ⑬ **들넛에 무릎에** : [‘들:려게], [무르페]’를 [‘들려게], [무르베]’라고 잘못 연음하고 있다.

“--- 들녘에[들녀게] ---” (00.7.24. JTV ‘뉴스&뉴스’ 전주 뉴스 ㄱ 기자)

“--- 부인 무릎에[무르베] ---” (99.1.8. K2TV ‘코미디 세상 만사’ 진행 ㅅ 개그맨(남), 발음이 다들 이 모양인 것은 방송을 경시하거나 편한 것만을 좇는 탓이 아닌가 싶다.)

⑭ **몰염치(沒廉恥)·몰이해(沒理解)** : ‘[몰럼치], [몰리해]’ 라야 하지만, 사전조차 서로 달라 혼란이 많다. 현존 사전 중 ‘몰인격’은 「우리말 큰사전」(한글학회, 1991)만 [-린-]으로 첨가하고 있다³⁾. ‘몰이해’는, 「우리말 발음사전」(이은정, 1992)만 [모리해]로 연음하고 있다. 혼란하여 정확한 발음을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을 정도이다. ‘표준 발음법’에 의하면,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나, 녀, 뇨, 뉴]로 발음한다(제29항). 이때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음은 [리]로 발음한다(동 붙임1). ‘들일[들릴], 불여우[불려우], 설익다[설릭따], 휘발유[휘발류]’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의도적인지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몰염치[몰럼치]’ (00.8.29. MBC TV ‘마감 뉴스’ ㅎ 해설 위원)라는 발음은 너무나 당연한 발음인데도 모처럼 들어보는 바른 발음이라 반가웠다.

“--- 무용에 대한 사회의 몰이해[모리해]에 맞섰고 ---” (00.4.24. K2TV TV 명인전’ 해설 ㅅ 성우)

“--- 편견과 몰이해[모리해] ---” (00.9.17. MBC TV ‘시사 매거진 2580’ ㅅ 기자(남))

참고로, 아래에 사전들의 상이한 발음 표기를 보인다(⑭ 불이익(不利益)도 참고 바람).

	국어연구원	한글학회	KBS	백 산	민 중	동 아	금 성	비고(표준 발음법)
몰염치	===	-럼-	모럼치	”	===	===	===	몰럼치
몰이해	몰리해	”	”	모리해	몰리해	”	”	몰리해
몰인격	-격	-린-	---	모린격	”	-격	”	몰린격
몰인식	모린식	-린-	모린식	”	”	”	”	몰린식
몰인정	모린정	-린-	모린정	”	”	”	”	몰린정

1. 국립국어연구원, 「표준 국어대사전」(두산 동아, 1999) 2.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

3) 이 경우 ‘격’의 발음이 [꺀]인지 [꺁]인지 모호하므로 혼란을 더하게 된다. 「한글학회」는 ‘일반적인 경향으로 발음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 발음 표기를 생략했기 때문이다. 사전의 편찬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점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진」(어문각, 1991.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의 고시(1988.1.) 이전에 작성된 원고를 출간한 것으로 보이나 발음에는 별 변동이 없으므로 같이 검토한다.) 3. 한국방송공사(KBS), 「표준 한국어 발음대사전」(어문각, 1993) 4. 이은정, 「우리말 발음사전」(백산출판사, 1992) 5. 국어국문학회, 「국어대사전」(민중서관, 2000):-편집국 편, 「엡센스 國語辭典」(민중서림, 1991. 수정판 제1쇄) 6. 「새 국어사전」(동아출판사, 1996. 개정판 3쇄: (주)두산 동아, 2000. 제4판 1쇄) 7. 「국어대사전」, 「뉴에이스 국어사전」(금성출판사, 1991: 1995. 혁신판)(---은 해당 사전에 표제어가 없음, ===은 발음 표기가 없음을 뜻한다. 발음 표기가 없으면, '표제어의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 경우와 순수히 연음화 현상만 적용되는 경우'('국어연구원), '일반적인 경향으로 발음이 어렵지 않은 경우'('한글학회)), '원음 즉 표제어의 글자와 다르게 발음되지 않는 말'('민중) 등을 말한다. '일반적인 경향으로 발음이 어렵지 않은 경우'라는 「한글학회」의 일러두기는 너무 모호하므로 재검토해야 한다. '비고(표준 발음법)'는 현실음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대로의 발음을 필자가 나타낸 것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술할 예정이다. 이하 위의 사전들은 각각 「국어연구원」, 「한글학회」, 「KBS」, 「백산」, 「민중」, 「동아」, 「금성」으로 줄여 표시한다.)

⑮ 못 오르다 : [모도르다]로 발음해야 하는데, [몬 오르다](뽀어 읽으면 틀린다.), [모(몬)노르다](이 경우는 주로 경상 방언)라고 하는 일이 많다. '제29항'은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를 말하는데, 그 외의 단어에도 이 조항을 적용한 데서 나온 오류이다.

⑯ 못 이기다·못 이루다·못 입다·못 잇다 등 : '제18항 붙임'과 '제29항 붙임2'에 의거, 각각 [몬이기다], [몬이루다], [몬입따], [몬잇따]로 발음해야 하는데, [모디루다], [모디기다], [모딤따], [모딤따]라고 하는 일이 많다. 심지어 [몬 이기다·몬 이루다·몬 이러나다·몬 익따·몬 입따·몬 잇따]처럼 두 말을 따로따로 발음하는 경향이 퍼져 있다. 이 말들은 필자의 다른 글⁴⁾에서 든 예이므로 각각 한두 사례만 보인다.

“협박에 (부모님의 설득에) 못 이겨[모디겨] ---” (98.5.13. K2TV '공개 수배 25시' 진행 기자, 00.10.17. MBC R '싱글빙글 쇼' ㄱ 공동 진행자(여))

“〈갯장어가〉 성질을 못 이기고[모디기고] ---” (00.7.17. K1TV '6시 내 고향 창원=아나운서(리포터(?), 여))

“못 이룬[모디룬] 잠 (밤) ---” (00.7.4.07:00 SBS TV 뉴스 〇 앵커, 00.7.8. K1TV 뉴스9 〇 기자)

4) 주 1). '동화' 항.

“잠을 못 이루면[모디루면] ---, --- 잠 못 이루는[몬니루는] 밤.” (00.7.17. K2TV ‘클릭 날씨@생활’ ㅎ 리포터(여), 같은 사람이 한 문단에서 발음을 혼용하고 있는 실태는 우리말 발음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우리말 발음에 관심과 자신이 없는 탓이다. 각성과 연수가 절실하다.)

“--- 잠 못 이루는[몬 이루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00.8.17. KBS TV 뉴스 ㅅ 기자, [모디루는]도 아니고 그나마 따로따로 떼어서 말하는 묘한 풍조를 볼 수 있다. ‘표준 발음법’(제18항 붙임)에서 보인 대로, 붙여서 [몬니루는]이러야 한다.)

“못 먹고 못 입고[모딧고] --- 못 잊어요[모디저요].” (00.5.22. K1TV 극 ‘좋은 걸 어떡해’ 미주 역의 ㅇ 텔런트)

“오늘의 이 감격을 못 잊을[모디즐] 것 같아요.” (99.12.30. MBC TV ‘99 MBC 연기 대상’ 신인상 사회 ㅎ 텔런트, [몬납고], [몬니저요]라야 한다. 연기자의 첫째 조건은 바로 그 뚜렷한 발음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㉗ **물 이용(利用)** : ‘제29항 붙임2’에 따라 첨가되는 말이니 끊어 읽지 않아야 한다.

“물 이용(물리용) 부담금을 ---” (00.7.7. MBC TV ‘뉴스 데스크’ 전주 뉴스 앵커(기자, 남), 제대로 발음하여 반가웠다.)

㉘ **불이익(不利益)** : 규정과 현실음의 차이겠지만, 대개의 사전이 ‘불여우, 불이익, 불이행’은 첨가되고, ‘불연속, 불안전, 불유쾌, 불이득, 불인가, 불인정, 불일치’ 등은 연음되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문제는 규정(제29항 붙임1)이 모호하고, 이에 따라 사전마다 발음 표기가 다르다는 데 있다. 규정을 만들고도 단어마다 사정하는 식이면 이 규정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제29항 붙임1’의 예 중 ‘설익다[설릭따]’의 ‘설’과 ‘휘발-유[휘발류]’의 ‘유(油)’는 단독으로 설수 없는 말이다. 그렇다면 ‘불요(不要, 不撓), 불의(不意, 不義), 불인(不人), 불임(不妊)’ 등은 또 그렇다 쳐도, ‘불운(不運), 불인(不仁)’ 등은 왜 연음이 되는지 종잡기 어렵다.

“눈인사(-人事)[누닌사]를 ---” (00.10.3. 제주 K1TV ‘한라산 3부작’ 중 제1부 ‘오름의 신비’ ㄱ 해설자)처럼 첨가하지 않은 발음은 ‘제29항’에 어긋나는, 틀린 발음이다. 「한글학회」는 [눈닌사:]⁹로 첨가하여 표기하고 있다. 그러면 ‘눈익다’는 왜 [눈닉따]⁹이고 ‘눈요기(-療飢)’는 왜 [눈뇨기]인가?

5) 특별한 경우가 아닌데도 제2음절 이하에 짐음 표기를 하는 것은 시정해야 한다.

6) 「한글학회」에는 [-닉-]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눈닉다]로 읽을 소지가 있으므로 [-닉따]로 표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발음 표기에 한해 보더라도, '규정 따로 사전 따로' 이고 사전마다 제각각인 상황이다. 이를 보이기 위해 현존 국어 사전의 예를 하나만 들겠다. '유들유들'은 '제29항 붙임1'에 [유들류들]로 예시까지 되어 있는 말이다. 「한글학회」, 「KBS」 등은 [유글류들]로 표기하고 있으나 [유들류들/유드류들](「국어연구원」, 「민중」 등)로 나온 사전도 있으니, 실로 참담하기까지 한 실상이다. 필자는, 일관되고 합리적인 발음 기준과 그 적용이 절실하다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전마다 발음이 상이한 실상의 일부를 보인다.

	국어연구원	한글학회	KBS	백 산	민 중	동 아	금 성	비교(표준 발음법)
덧신다	덧신따	덧신:다 [-따]	더싰따	덜싰따	''	''	덜신:다 [-따]	덜싰따(23항)
덧양말	던냥말	''	''	''	''	''	''	던냥말
덧없다	더덜따	덜-	더덜따	''	덜업따	''	''	더덜따
덧입다	던닙따	-닙-	던닙따	''	''	''	''	던닙따
덧저고리	덜쩌고리	===	더쩌고리	덜쩌고리	''	덜저고리	덜쩌고리	덜쩌고리(23항)
맨입	맨닙	''	''	''	''	''	''	맨닙
몰렘치	===	-렘-	모렘치	''	===	===	===	몰렘치
몰이해	몰리해	''	''	모리해	몰리해	''	''	몰리해
몰인격	-격	-린-	---	모린격	''	-격	''	몰린격
밀수입(출)	밀수입(출)	''	''	''	''	''	''	밀수입(출)
불법 (不法, 佛法)	불법	''	''	''	''	''	''	불법
불려우	불려우	-녀-	불려우	''	''	''	''	불려우
불연속	부련속	===	부련속	''	''	''	''	불련속
불요 (不要, 不撓)	부료	===	부료	''	''	''	''	부료
불유쾌	부류쾌	===	불류쾌	부류쾌	===	===	===	불류쾌
불이익	불리익	-리-	''	부리익	불리익	''	''	불리익
불이행	불리행	===	불리행	부리행	불리행	''	''	불리행
불일치	부릴치	===	''	''	''	''	''	불릴치
역(驛)이어 달리기	영니어 달리기	-니-	여기어 달리기	''	''	''	영니-	영니어달리기
역이용	여기용	-니-	''	''	''	''	''	영니용

이처럼 '규정 따로 사전 따로, 사전 따로 말 따로' 인 단어가 많은 데다, 첨가해야 할 때는 안 하고 연음해야 할 때는 첨가한다. 도대체 '표준 발음법'은 무

엇 때문에 있는지, 규정이 얼마나 치밀하지 못한 지를 가늠할 수 있다. ‘표준 발음법’(제29항과 동 붙임1)에 의하면, ‘몰염치, 몰이해, 몰인격, 몰인식, 몰인정, 불연속, 불유쾌, 불이익, 불이행, 불일치, 역이용’ 등은 당연히 첨가되어야 함에도 현실음과 대부분의 사전은 연음을 하고 있다. ‘몰-염치’는 [몰념치→몰렴치]로, ‘불유쾌’는 [불뉴쾌→불류쾌]로 발음되는 과정을 밝게 된다. 그러나 잘 지켜지지 않는다. 따라서 우선 이런 상황을 반영 또는 교정할 수 있게, 발음법이 좀더 치밀하게 짜여져야 한다. 언어 생활에 어법이 우선할 수는 없지만, 현실음을 포괄할 수 있는 상세한 규정을 만들고 이에 따라 사전을 편찬해야 한다. 그래야 방송에서도 사전을 기준 삼아 바른 말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실제의 언어 생활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야 하며 그것이 조항으로 나타나야 한다. 표기와 발음이 따로따로인 단어가 많은 우리말은 더욱 그렇다.

‘렬, 룰’의 발음에 대해서는 ‘백분율(百分率)’을 예로 검토한 바 있다.” ‘한글 맞춤법’(제11항 붙임4: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에 따라 적은 말이 ‘역이용, 연이율’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기대로 [여기용], [여니율]이라 발음하는 것은 우리말의 특성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그런 사람(사전)도 ‘열역학(熱力學)[열력학]’을 [여력학]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되풀이 말하면, ‘역이용’이 연음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여기에서, 「KBS」가 일관성을 결여한 데다 전문 방송인들이 이를 잘 지키지도 않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확실한 말을 틀리게 발음하는 언론 매체 종사자가 너무나 많다. 언론사는 끊임없는 자체 연수, 평정, 엄격한 출연자 선정 등을 통해 발음과 표현을 개선해 나가고, 시청자는 계속적인 감시와 시청 측구를 통해 언론사를 채찍질해야 한다.

‘불이익’의 발음은 너무도 많이 틀린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표준점수는 불이익(부리익)이 없도록 하는 제도-----” (98.12.19. MBC TV ‘뉴스 데스크’ ㄷ 기자)

가) 주) 1. ‘첨가 항’ ‘한글 맞춤법’의 ‘제11항 붙임1 다만’에 따라,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룰’은 ‘열, 율’로 적는다. ‘분열, 비율, 전율, 백분율’ 등이 그 예인데, 이 중 ‘백분율’은 [백분율]로 첨가시켜 발음한다(국어연구원), 「KBS」, 「백산」, 「민중(엡센스 國語辭典)」, 「동아」 등. ‘백분+율’로 구성된 이 말에 ‘표준발음법’ 제29항을 적용한다면 [백분율]이 옳다. 그런데 「한글학회」와 「금성(국어대사전)」, 「민중(국어대사전)」에는 발음 표기가 없으니 연음하라는 뜻이겠다. 틀린 것이지만, ‘백+분율’로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백분율]이 된다. 이렇게 혼동할 만한 말은 예시를 해 줘야 확실하다. 필자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발음 규정을 위한 기준 설정과 그 적용을 지적하기 위해 이 말을 따로 든 바 있다.

- “--- 사회로부터 당한 불이익[부리익]을---” (99.1.5. MBC R ‘지금은 라디오 시대’ ㄷ 공동 진행자)
- “법무부가 (검사에게) 인사상의 불이익[부리익]을 ---” (99.1.6. MBC TV ‘뉴스 데스크’ ㄷ 공동 앵커(여)와 ㄱ 기자)
- “고용상의 불이익[부리익]을 주는 것---” (99.1.8. MBC TV ‘뉴스 데스크’ ㄱ 기자)
- “--- 불이익[부리익]을 받았던 ---” (99.10.24.21:30 MBC(K1(?)) TV 뉴스 ㄷ 기자)
- “--- 일정 기간 불이익[부리익]을 주기로 ---” (99.11.3.19:00 MBC R ‘저녁 종합 뉴스’ ㅎ 아나운서)
- “--- (앞으로) 불이익[부리익]을 받을 ---” (99.11.5. K1TV ‘마감 뉴스’ ㅇ 아나운서와 ㅇ 기자)
- “(세금 체납자는) 불이익[부리익]을 받게 됩니다.” (99.11.7. K1TV 뉴스9 제주 뉴스 ㅇ 앵커(여))
- “--- 불이익[부리익]을 주겠다고 (받게)---” (00.3.27. K1TV 뉴스9 ㄱ 공동 앵커(남), 00.3.28.11:00 MBC R 뉴스 ㅅ 아나운서(남))
- “--- 행여 남편에게 불이익[부리익]이 있을까 봐 ---” (00.4.25. MBC TV ‘PD 수첩’ ㄱ PD)
- “--- 영어 때문에 불이익[부리익]을 당했던 정 씨 ---” (00.4.30. K1TV ‘일요 스페셜’ 해설 ㅈ(?) 성우(남))
- “--- 집을 팔 때 불이익[부리익]을 받게 됩니다.” (00.4.30.21:00 K1TV 뉴스9 주요 뉴스 항목 소개 ㄱ 아나운서(남))
- “(축협 직원들에게) 불이익[부리익]을 주지는 않을 것--” (00.5.2. K1TV 뉴스9 ㄱ 기자(남), 그나마 이 기자는 ‘축협’을 [추협]이라 하여 반가웠다.)
- “--- 혹시라도 자식이 불이익[부리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00.5.14. K1TV 뉴스9 ㅈ 기자, 그나마 ‘자녀’가 아닌 ‘자식’에서 위안을 받는다.)
- “(정직하게 신고하면 납세에) 불이익[부리익]을 당하고 ---” (00.5.14. MBC TV ‘시사 매거진 2580’ ㅈ 기자)
- “교육 공무원인 아들이 혹시 불이익[부리익]을 당할까 봐 ---” (00.5.23. MBC TV ‘PD 수첩’ 독도로 호적을 이전하는 문제를 보도하며 ㄱ PD)
- “--- 불합격하면 진급 심사에서 불이익[부리익]을 받습니다.” (00.5.28. MBC TV ‘시사 매거진 2580’ ㄱ 기자)
- “--- 감봉 등 불이익[부리익]을 받게 된 ---” (00.5.31.11:00 MBC R 뉴스 ㅂ 아나운서(남))
- “직장내의 성희롱은 --- 불이익[부리익]을 줍니다.” (00.6.5. MBC TV,

00.6.7. K1TV '성희룡 추방 캠페인' ○ 아나운서(남)

"--- 오히려 불이익[부리익]을 감수해야 ---" (00.7.13. K1TV 뉴스9 '스포츠 뉴스' ㅂ 기자)

"--- 일정 기간 불이익[부리익]을 줄 예정입니다." (00.7.20.17:00 MBC R 제주 뉴스 ㅎ 아나운서(남))

"--- 어떠한 불이익[부리익]도 없으며 ---" (00.7.25. K1TV '뉴스 네트워크' 전주 뉴스 아나운서)

"--- 불이익[부리익] 등이 예상됩니다." (00.7.31. MBC R '두 시의 취재 현장' ㄱ 기자)

"--- 불이익[부리익]을 줄 방침입니다." (00.7.31. K1TV '뉴스 라인' ㅂ 기자, 00.11.8. K1TV 뉴스9 ㅎ 앵커(여))

"(지방대 졸업생들이) 상대적인 불이익[부리익]을 받지 않도록 ---" (00.9.28. K2TV '뉴스 투데이' 공동 앵커 ㅎ 아나운서(여))

"정부가 파업을 철화한 의사에게 불이익[부리익]을 줄 경우 ---" (00.10.10. K1TV 뉴스9 ○ 기자(남))

"--- 회원들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부리익]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 (00.10.10. K1TV 뉴스9 제주 뉴스 ㅎ 앵커(아나운서, 남))

"--- 만약 그런 장관이 있으면 불이익[부리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 (01.2.6 MBC TV '뉴스 데스크' ㄱ 공동 앵커(남))

㉑ 삼연패(三連敗 · 三連霸) · 팔연패(八連敗 · 八連霸) : [삼년패], [팔련패]로 발음해야 옳다(제29항 불입2).

"팔연패(八連敗)[파련패]의 늪에 빠진 ---" (00.7.29. '월드컵 스페셜' 해설 성우(남))

㉒ 샅샅이 : '샅샅이'의 정확한 발음은 [샅싸치]이다(제23항). [싸사치]같은 발음은 순전히 개인의 잘못된 버릇 때문이겠다. 그런데 「KBS」에는 [사싸치], 「한글학회」에는 [-사치], 「금성」에는 [샅사치]로 나온다. 표준 발음의 정립과 사전의 바른 표기가 절실하다.

"샅샅이[싼사치] 인터넷에 ---" (00.10.7. K1TV 뉴스9 ㄱ 기자)

㉓ 생이별(生離別) : "실제 강제 추방으로 생이별[생이별]을 하게 된 가족들이 나와 ---" (00.4.25. MBC TV 'PD 수첩' ㄱ PD, [생니별]이라야 옳다.)

"생이별[생이별]을 ---" (00.8.17. SBS TV 8뉴스 ㅅ 기자)

"--- 이런 생이별[생이별]도 없을 텐데 ---" (00.8.18. K1TV 뉴스9 ㅅ 기자)

"--- 아내와 아들을 생이별[생이별]을 했습니다." (00.10.1. MBC TV '뉴스 데스크' ○ 기자)

㉔ **설익다** : [설리따](제29항 붙임1)가 옳다.

“이십대의 설익은[서리근] 감성을 ---” (99.10.15. K1TV ‘현장 르포 제3지대’ 해설 ㅂ 성우, ‘ㄹ’이 첨가되어 [설리근]이라야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연음하는 습관은 빨리 고쳐야 한다. 성우 경력 30년이 넘는 전문가치고는 발음이 너무 허술하다. 노력 바란다.)

“---(잘못된 제도)와 설익은[서리근] 행동(행정) ---” (00.5.8. MBC TV ‘뉴스 데스크’ ㄱ 공동 앵커(여)와 보도 기자, 00.10.4. MBC TV ‘마감 뉴스’ ㅎ 앵커(기자))

“(제주도는) 설익은[서리근] 감귤(을 출하해) ---” (00.10.5.09:50, 00.10.10.09:50 K1V 제주 뉴스 ㄱ 기자(남), 00.10.25. K1TV 뉴스9 제주 뉴스 ㄷ 앵커(아나운서, 남))

㉕ **술 익는** : “술 익는[수링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놀 ---” (00.9.30. K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공동 진행 ㅇ 아나운서(남), 중진 아나운서의 이 발음은 정말 그의 오랜 경력을 의심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술 익는[술링는]’의 발음 문제는 십수 년 전 대학 입학 시험에도 출제되었던 것이다.)

㉖ **알약(-藥)** : “--- 마치 알약[아략]을 먹듯이 ---” (01.1.11. MBC TV ‘지구촌 리포트’ 진행 기자(남), ‘물약’이 [물략]인 것과 같다.)

㉗ **연잇다(連-)** : ‘연잇다(連-)’의 발음 표기는, [연닐따](「국어연구원」, 「KBS」)와 「여닐따」(「한글학회」(발음 표기 없음), 「민중」)로 사전마다 다르게 나오는 실정이다. 음을 첨가하여 [연닐따]로 발음해야 옳다(제29항).

“--- 연이어[연니어] 들어서 있습니다.” (00.10.15. K1TV ‘취재 파일 4321’ ㅇ 기자, 옳은 발음이다.)

㉘ **열릴곱·열일고여덟** : ‘표준 발음법’(제29항 붙임2 다만)에서 예시한 ‘6·25[유기오], 3·1절[사미절], 송별연[송:벼런], 등용문[등용문]’ 외엔 ‘ㄴ(ㄹ)’음이 첨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열릴곱]이어야 맞다.

㉙ **웃 입다** : ‘제29항 붙임2’에 예시된 대로,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첨가 현상이 일어나는데, 절음 상태에서 연음하는 이상한 풍조가 있다.

“웃 입는[오딤는] 맛이 다르네!” (99.11.27. ㅍ 양복 TV 광고 ㅂ 텔런트(남), ‘다르네’는 바른 말이다.)

㉚ **이웃 약국(藥局)** : 붙여서 읽으니 동화되어 자연히 첨가된다. [이운약국]이 옳은 발음이다.

“이웃 약국[이운 약국/이우약국]에 ---” (00.10.3. K1TV 뉴스9 ㄱ 기자와 제주 뉴스 ㄷ 앵커)

㉘ **일이(一二), 12·12** : ‘일이(一二)’를 [이리/일리](「민중」)나 [이리](「국어연구원」)로 읽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글학회」에는 ‘일이:[-리]’로 나온다. [일리]라야 맞다. ‘일이’를 글자대로 끊어 읽는, 그릇된 습관도 버려야 한다.

“일이[이리] 년 전 만 해도 ---, 일이[일리] 층으로 올려 보내고 ---”
(00.10.9. K1TV 뉴스9 ㄱ 기자(여), 한 문단에서 두 가지 발음을 혼용하는 상황은 이런 실정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12·12[시비 시비] 쿠데타 이후---” (00.8.6. MBC TV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설 ㅅ 성우(남), 발음법은 되도록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특히 방송에서는 이를 지켜야 한다. ‘12·12’만 [시비 일리]가 아닌 것 또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당시의 경관들은 모두) 일이 년[일 이년] 형을 ---” (00.10.22. MBC TV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설 ㅅ 성우(남), 설령 부득이 끊어 읽는 경우라도 [일 이:년]이라야 한다.)

㉙ **119** : ‘열일곱’처럼 첨가되는 말이다.

“119[이릴구] 구조대에 의해 ---” (00.7.23.(01:00) K1TV 뉴스 특보 ㅅ 기자(남))

㉚ **잘 익은** :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이다(제29항 붙임2). 따라서 [잘리근]이라야 옳다. “술 익는[술링는] 마을마다---”를 상기하면 좋겠다. ‘곧 이어[고디어], 옷 입다[오딧따]’ (둘 다 틀린 발음이다.)처럼 까닭 없이 연음하는 것도 유행인지 모르겠다. 유행이면 스티치고 지나가지만 방치하면 이대로 굳어질 것이다.

“잘 익은[자리근] 벼와는 대조적으로 ---” (99.10.1. K2TV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진행 ㅇ 아나운서(남))

“잘 익은[자 리근] 인생의 향기, 5년 숙성의 ---” (00.3.25. MBC R, 00.9.26. MBC R ㄹ 술 선전 성우(남), [자 리근]에 가까우면서도, [잘 이근]과 [잘 리근]을 섞은 듯한, 모한 발음을 하였다.)

“--- 잘 익은[자리근] 김치(밤)를 ---” (00.5.16. MBC TV ‘수요 예술 무대’ 진행 ㅇ 텔런트, 00.9.15.08:00 K2TV ‘생방송 오늘’ ㄱ 리포터(여))

“잘 익은[잘 이근] 건가요?” (00.9.30. K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포터(여))

“(감귤이) 잘 익게[잘 익게] 되어 ---” (00.10.11. MBC R ‘제주 비전 열린 이야기’ ㄱ 공동 진행자(여))

“잘 익었다[자리전따]!” (00.11.4. MBC TV ㅅ 까나리 액젓 선전 ㄱ 텔런트(여))

“요새는 잘 익은[자리근] 맛, 덜 익은[더리근] 맛 ---” (00.11.29. MBC R ㅅ 김치독 선전 성우(여))

⑫ **잘 입다** : ‘잘 익다’와 같은 구조의 ‘잘 입다’ 같은 말은, 첨가를 하지 않고 사전마다 [자립따]로 연음하라 하고 있으니(「한글학회」에는 발음 표기가 없으니 연음하라는 뜻이겠다.), 바른 발음의 정립이 참으로 시급하다. 도무지 발음법의 예외가 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러니 우리말이 어렵다는 비명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긴 이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쓰는 사람도 많지 않은 실정이니 더욱 걱정스럽다. 게다가 ‘잘 입다’가 표제어로 나온 사전은 모두 이 단어를 붙여 쓰고 있는데 반해, ‘표준 발음법’(제29항 붙임2)에는 ‘잘 입다’로 띄어쓰고 있으니, 더욱 혼란스럽다. ‘잘 입다’의 뜻이 붙여 썼다고 변한 것도 아니다. 의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것도 ‘잘 입다’이고, 옷 따위를 안목 있게 입을 줄 아는 것도 ‘잘 입다’이다. ‘표준 발음법’(제29항 붙임2)에는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로, ‘3연대[삼년대], 옷 입다[온닙따], 1연대[일련대], 잘 입다[잘립따], 한 일[한닐], 할 일[할릴]’ 등을 따로 예시하고 있다. 두 단어도 “물 이용(利用)[물리용] 부담금을 ---” (00.7.7. MBC TV ‘뉴스테스크’ 전주 뉴스 앵커(남))처럼 한 마디로 발음할 때는 음이 첨가되어야 옳다.

아래에 여러 사전의 발음 표기를 보인다.

	국어연구원	한글학회	KBS	백 산	민 중	동 아	금 성	비교(표준 발음법)
잘 입다	---	====	자립따	---	자립따	---	====	잘립따

“---속옷을 잘 입어야[자:리버야] ---” (00.7.13. K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공동 진행 ○ 아나운서(남) · ㅈ 리포터(여))

“애들 잘 입히려고[자리피려고] ---” (00.10.17. K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공동 진행 ○ 아나운서(남))

⑬ **큰 일** : “(전쟁이란) 위낙이 큰일[크닐]이다 보니 ---” (00.10.7. K1TV 극 ‘太祖 王建’ 유 장자 역의 ㄱ 텔런트(남), [크닐]은 큰 예식이나 잔치를 말하니 [크닐]이라야 옳다.)

“--- 또 하나의 크일[크닐]을 준비하고 있다.”(00.11.7. K2TV ‘마이 웨이’ 해설 ㄱ 성우(남))

⑭ **한남동(漢南洞)** : “--- 한남동[할람동]에 갔다왔다는데 ---” (80.7.20. TBC TV ‘형사’ ㄱ 텔런트, ○ 텔런트는 [한남동]이라 했는데 [한:남동]이 정확한 발음이다. ‘안내(案内)’를 [알:래]라고 잘못 발음하는 것과 같은 예다.)

⑮ **한여름** : “한여름[하너름] 밤에---” (00.7.7. K1TV ‘KBS 예술 무대’ 사회 ㅎ 아나운서(여), [한너름]이라야 정확한 발음이다.)

③⑥ **합법화(合法化)** : ㄱ+ㅎ=ㅋ, ㄷ+ㅎ=ㅌ, ㅂ+ㅎ=ㅍ(제12항1. 붙임1)임을 무시하고 [합버봐]로 아예 ‘ㅎ’ 음을 생략하여 연음하는 일이 너무 많다. 이상한 풍조다.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른 글⁸⁾에서 자세히 지적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한두 예만 든다.

“개고기 합법화[합버봐] 논쟁---” (99.8.19. MBC TV ‘마감 뉴스’ ㅎ 앵커와 ㅅ 해설 위원, [하빠봐]라야 맞다. 대부분의 사전에 ‘합법[-뻬]’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합뻬]으로 읽으라는 뜻이 되어 문제가 있다.)

“--- 의과대학에 진학할[지나갈] 때---” (00.7.31. MBC R ‘두 시의 취재 현장’ 진행 ㅎ 해설 위원, 게다가 ‘진:학(進學)’은 장음이다.)

③⑦ **힘입다** : 정확한 발음은 [힘닙따]이나 사전마다 발음 표기가 다르다. 대부분의 사전에 ‘힘있다, 힘없다’는 [히밋따], [히뻬따]로 표기하고 있으니, 음운이 첨가되는 데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표준 발음법’ (제29항)에 의하면, ‘힘있다’는 [힘닙따]로 발음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공의의 폐업 결정에, 경기 성과에) 힘입어[힘니버] ---” (00.8.21.09:30 K1TV 뉴스 ㅂ 기자(조금 모호한 발음이었지만 [힘니버]에 가까웠다.), 00.10.19. K1TV ‘뉴스 라인’ ㅎ 공동 앵커(여), 00.10.29. K1TV 뉴스9 ㅅ(?) 공동 앵커(여))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바른 발음이었다.

현행 사전의 자의적 발음 표기 상황을 표로 보인다.

	국어연구원	한글학회	KBS	백 산	민 중	등 아	금 성	비고(표준 발음법)
힘입다	힘닙따	-닙-	히밋따	히뻬따	힘닙따	”	힘닙따 (-닙-)	힘닙따

실정이 이러하니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 ‘표준 발음법’에 따라 사전을 빨리 보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KBS]의 발음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전원일기’ 출연진의) 성원에 힘입어[히미버] ---” (99.12.30. MBC TV ‘99 MBC 연기 대상’ ㄱ 탤런트)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히미버] ---” (00.7.12. MBC R ㄷ 자동차 선전)

“(가족들의 성원, 국민의 저력, 만경강, 도민의 제보, 경제 발전)에 힘입어[히미버] ---” (00.7.27. K1TV ‘강력 추천 고교 캠프’ 목소리 출연 성우(여), 00.8.21. MBC TV ‘피자의 아침’의 ‘중시 기상대’ ㅎ 리포터, ‘피자’는 ‘피디(PD)+기자’를 합성한 말이라지만 부정적 영향이 큰, 어이없는 조어이다. 방송이

8) Ibid, ‘발침’ 항.

이런 일에 앞장서다니 큰일이랄박에! 이 점은 별도로 논술하겠다. 00.8.23. K1TV 뉴스9 ㅂ 기자, 00.8.29. K1TV '네트워크 기획' 해설 ㄱ 성우(남), 00.9.17. MBC TV '시사매거진 2580' ㅇ 기자(남), 00.9.22.09:50 K1TV 제주 뉴스 ㅇ 아나운서(여), 00.10.14.22:50 K1TV '경제 전망대' ㅎ 기자(남)

㉔ **받침의 연음*** : 특히 받침 'ㄷ, ㅋ, ㅌ, ㅍ, ㄱ, ㄴ, ㄹ, ㅂ, ㅅ, ㅁ' 등을 제대로 이어 발음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 절음·연음법칙을 오해한 데서 나온 듯하다. 가령 '부엌 안'은 [부어간]이고, '부엌이'는 [부어키]라야 한다. 두어 예만 든다.

“말이[마디]를 큰 오름, 둘째를 ---” (00.10.3. 제주 K1TV '한라산 3부작' 중 제1부 '오름의 신비' ㄱ 해설자(남), [마지]라야 한다.)

“--- 마늘밭입니다[마늘바십니다].” (98.5. K1TV 뉴스9 제주 뉴스 ㅇ 기자(남))

“--- 남씨의 뚝으로[모그로] 남아있습니다.” (99.1.19. K2TV '공개 수배 25시' ㅇ 기자, [목쓰로]라야 정확한 발음이다(제14항).

㉕ **연음 기피 현상(끊어서 읽는 풍조)** : '흔히, 꼼꼼히' 같은 말의 발음에서, 'ㅎ' 음을 아예 생략하거나 '흔'과 '히'를 끊어 읽는 일을 많이 본다. 'ㅎ' 받침의 경우, 음이 생략되는 예도 발음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제12항). '흔히, 꼼꼼히'는 '제12항'과 전혀 무관한 데도 불구하고 'ㅎ' 음을 발음하지 않는 일이 많다(예: “--- 준비도 꼼꼼히[꼼꼬:미] 한 편이었고 ---” (00.10.19. K1TV '뉴스 라인' ㄱ 공동 앵커(남), “--- 정일형[정일령]·이태형 박사 기념관 ---” (00.12.13. K1TV '수요기획' 해설 ㅈ 아나운서(여), 여기에서는 그릇된 첨가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 경우는 자연히 연음되니까, 연음을 하면서 'ㅎ' 음도 내야 한다. 즉, 'ㅎ' 음을 조금 넣으면서 '이' 발음을 해야 한다. 가령 '천하(天下)'는 [처나]나 [천 하]가 아니고 [처나]에 가깝게 발음하면서 'ㅎ' 음을 내야 정확한 발음이다.

그런데 지금의 실정은 아예 생략하거나 끊어 읽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해야 하는 데도 단어마다 끊어 읽는 경향도 있다. 심지어는 한 단어를 글자마다 끊어서 발음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현상은 '무지로 인한 의식적인 연음 기피'라고 하겠다. 그러나 언중은, 'ㅎ' 음이 조금 들어가는 '이' 발음이 신경 쓰이고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를 회피하게 된다. 이 상태로 내버려 두면 어색하게 글자대로 끊어 읽는 현상이 더욱 만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연음할 수 있도록 'ㄴ, ㄹ' 받침에 이어서

9) Ibid., '받침(그릇된 切音·連音) 항의 논급을 참고바람.

는 ‘ㅎ’ 음은 아예 발음하지 않는 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 어떻게 적절허니[적절 허니] 대응할 ---” (99.1.9. K1TV ‘시사 토론’ 사회 ㄴ 해설 위원, ‘적절허니’는 ‘적절하게(적절히)’의 특정 지역 어투다. 이 경우 ‘ㅎ’이 묵음은 아니지만 많이 약화되는 것이 바른 발음인데, ‘적절’과 ‘허니’를 끊어서 발음하였다. 적어도 전문 방송인이라면 표준어를 쓰고 바른 발음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뜩문뜩[문뜩문뜩]” (00.4.30. EBS TV ‘철학 에세이’ 〇 교수(여), ‘문뜩문뜩’은 ‘문뜩문뜩’의 센말이라 [-뜩-]으로 발음했는지 모르겠으나, [문똥문뜩]이라야 옳다. 이 역시 잘못된 끊어 읽기의 반영이다.)

“웃어른[원 어른]이 계시니까 ---” (00.7.4. K2TV 극 ‘목욕탕집 남자들’(재) ㅅ 텔런트(남), ‘웃어른[우더른]’이라야 하는데 그나마 끊어서 [원 어른]이라니, 작가 탓인지 배우 탓인지 궁금하다. ㅅ 씨는 라디오 프로그램도 진행하는데, 발음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

“--- 꼼꼼히[꼼 꼼: 히] 살펴야 ---” (00.7.8. K1TV 뉴스9 앵커(남), 역시 [꼼 꼬미]에 가깝게 발음하면서 ‘ㅎ’ 음을 내야 한다. ‘꼼’은 단음이다.)

“진화[진 화]” (00.8.1. K1TV 뉴스9 울산=〇 기자, [진 화]로 끊어 읽으면 안 되고 [지:놉]에 가깝게 발음하면서 ‘ㅎ’ 음을 내야 정확하다. ‘진’은 장음이다.)

“가슴 아픈[가슴 아픈] 장면도 ---” (00.8.17. SBS TV 8뉴스 공동 앵커(남)

“안간힘[안 간 힘]을 다해 기여가는 ---” (00.8.17. K1TV ‘현장 르포 제3지대’ 해설 ㅂ 성우, [안 간 힘]으로 한 자씩 끊어 읽었다.)

“--- 과감히 집 나서기[집 나서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00.10.15. MBC TV ‘시사 매거진 2580’ ㄱ 기자(남), [집나서기]라야 옳다.)

“(당시의 경관들은 모두) 일이 년[일 이년] 형을 ---” (00.10.22. MBC TV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설 ㄷ 성우(남), 설령 부득이 끊어 읽는 경우라도 [일 이:년]이라야 한다.)

“--- 인간 승리[勝利][승리]의 감동이 계속됐습니다.” (00.10.23. K1TV 뉴스9 ‘스포츠 뉴스’ 시드니=〇 기자, 당연히 [승니]라야 한다.)

III. 硬 音

뒷말이 경음화하는 경우는 이론이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정확히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경음 여부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그 차이는 중요하지만, 대개는 의식 없이 발음하고 있다.

경음 여부에 따라 뜻까지 달라지는 몇 예를 제시하겠다.

- 1) 돌다리[-따-] : 도랑에 놓은 조그마한 다리.
 돌:다리 : 돌로 놓은 다리.
- 2) 문과(文科) : 문관을 뽑던 과거.
 문과(文科)[-과] : 문화에 관한 학문 부문.
- 3) 문자[문자] : 예전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어려운 문구.
 문자[문짜] : 글자.
- 4) 잠자리[-짜-] : 잠을 자는 곳.
 잠자리 : 잠자리과의 곤충.

‘세련(洗練)’을 [세:련], ‘과(課, 科)’를 [과]라 하는 식으로 근래 들어 모든 말을 세게 발음하는 경향이 전반적인데, 그 반작용인지 아니면 평음이 품위 있다고 오해해서인지, 방송에서는 경음화할 말을 오히려 평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종종 듣는다.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말이 적지 않은 데 기인한 것이지만, 어느 나라 말이나 두 가지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다. 잘못된 경(평)음화의 예는 너무나 많아서 이루 다 들 수는 없고, 많이 틀리는 말을 위주로 예거한다. 먼저 해당 조항을 보인다.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ㄷ, ㅌ, ㅊ, ㅌ), ㅂ(ㅂ, ㅍ, ㅍ,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ㅌ, ㅊ’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국밥[국꺄]	깎다[깎따]	넋받이[넋빠지]	삯돈[삯똥]
닭장[닥짱]	칠범[치뵤]	뵤대다[뵤때다]	웃고름[은꼬름]
있던[일뵤]	꽃고[꼇꼬]	꽃다발[꼇따발]	낯설다[남썰다]
밭갈이[반까리]	솔전[솔뵤]	곱돌[곱똥]	뎡개[뎡개]
엮집[엮뵤]	넋죽하다[넋쭈카다]		웁조리다[웁쭈리다]
값지다[갑쩌다]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 ㅁ(ㅁ)’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ㅊ’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신고 [신:꼬]	껴안다[껴안따]	앉고[안꼬]	엮다[언따]
삼고[삼:꼬]	터듬지[더듬쩌]	닭고[담:꼬]	쪼지[점:쩌]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안기다	감기다	굶기다	웁기다
-----	-----	-----	-----

제25항 어간 받침 ‘ㅌ, ㅍ’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ㅊ’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넉게[넉께] 할다[할따] 홀소[홀쏘] 떨지[떨찌]

제26항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갈등[갈똥] 발동[발똥] 절도[절뜨] 말살[말쌀]
 불소[불쏘] (弗素) 일시[일씨] 갈증[갈쑹] 물질[물짚]
 발전[발쩐] 몰상식[몰쌍식] 불세출[불쑤출]

다만, 같은 한자가 겹쳐진 단어의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허허실실[허허실실] (虛虛實實) 절절-하다[절절하다] (切切-)

제27항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할 것을[할꺼슬] 갈 데가[갈떼가] 할 바를[할빠를]
 할 수는[할쑤는] 할 적에[할쩌게] 갈 곳[갈꼐]
 할 도리[할뜨리] 만날 사람[만날싸람]

다만, 끊어서 말할 적에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붙임]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할걸[할겅] 할밖에[할빠께] 할세라[할쑤라]
 할수록[할쑤록] 할지라도[할쩌라도] 할지언정[할쩌언정]
 할진대[할쩐대]

제28항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문 - 고리[문꼬리]	눈 - 동자[눈똥자]	신 - 바람[신빠람]
산 - 새[산쑤]	손 - 재주[손쑤주]	길 - 가[길까]
물 - 동이[물똥이]	발 - 바닥[발빠닥]	굴 - 속[굴 쑤]
술 - 잔[술짚]	바람 - 걸[바람겅]	그믐 - 달[그믐달]
아침 - 밥[아침빠]	잠 - 자리[잠짜리]	강 - 가[강까]
초승 - 달[초승달]	등 - 불[등똥]	창 - 살[창쌀]
강 - 줄기[강쑤기]		

1) 그릇된 경음화

① 간단(簡單) : 도무지 경음화할 이유가 없는 말이다. [간판]이 [간단]보다 더 발음하기에 편하지도 않다.

“이들은 간단[간판]하게 차를 훔쳤습니다.” (99.1.3. K1TV 뉴스9 ㅈ 기자(남))

“컴팩트로 간단히[간판히] 화장도 합니다.” (00.3.19. MBC TV ‘시사 매거진 2580’ ㅇ 기자, ‘컴팩트’는 ‘콤팩트’라야 한다.)

- “--- 간단한[간판한], 간단히[간판히], 간단하게[간판하게] ---” (00.4.16. MBC TV ‘시사 매거진 2580’ ㄱ 기자, 00.6.11.19:00 K1TV 뉴스 ㄹ 앵커(아나운서, 남), 00.7.20. MBC TV ‘100분 토론’ 토론자인 ㄱ 출판 평론가와 ㄱ 의원, 00.9.28.10:00 K1TV ‘2000 시드니 올림픽’ ㄷ 아나운서(남))
- “--- 간단한[간판한] 장비가 고작입니다.” (00.4.21. K1TV ‘취재 파일 4321’ ㄹ 기자)
- “(갈등을 푸는 것도) 간단[간판]치 않습니다.” (00.7.1. K1TV 뉴스9 ㄱ 기자)
- “이들의 해킹 수법은 의외로 간단[간판]했습니다.” (00.7.4. K1TV 뉴스9 ㄱ 기자)
- “피어싱(piercing) 도구는 의외로 간단[간판]하다.” (00.7.7. K1TV VJ 특공대’ 해설 성우)
- “그 원리는 간단[간판]합니다.” (00.8.8. K2TV ‘클릭! 날씨@생활’ 진행 ㄱ 기상 캐스터(여))
- “간단[간판]하게 해 주시겠어요?” (00.9.30. EBS TV ‘생방송 난상 토론’ 사회자(남, ㄹ 대 교수))
- ② **값을** : “---제값을[제값슬] 받지 못하고 ---” (00.4.28.09:40 K1TV 제주 뉴스 ㄱ 아나운서(여), [값슬]이 바른 발음이다(제14항).)
- ③ **거꾸로** : “이게 거꾸로[꺼꾸로] 타는 보이랴?” (00.9.22. MBC R ㄱ 보일러 선전 ㄱ 텔런트(여), 처음에는 [거꾸로]라고 했으나 다음엔 [꺼꾸로]라고 하였다. 구태여 경음으로 발음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어지는 성우(목소리 출연, 남)의 발음은 [거꾸로]라고 제대로 했다. ‘보이라(boiler)’는 ‘보일러’라야 한다.)
- ④ **고가(高架)** : “동대구역 앞 고가(高架)[고까] 밑 ---” (99.12.22. K1TV ‘환경 스페셜’ 해설 ㄱ 성우, [고가]는 ‘高架’, [고:가]는 ‘古家, 古歌, 故家’, [고까]는 ‘高價’이다. 따라서 ‘고가도로(高架道路)’를 말할 때는 [고가]라야 한다.)
- ⑤ **관건(關鍵)** : “관건[관견]” (00.10.16. K1TV 뉴스9 ‘스포츠 뉴스’ ㄱ 기자(남))”이란 발음이 반가울 정도로, 대개 경음으로 그릇 발음하고 있다. 경음화할 까닭이 없다.
- “--- 금액이 관건[관견]이 ---” (99.1.12. MBC TV ‘뉴스 데스크’ ㄴ 기자)
- “--- (승리의) 관건[관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00.7.2. SBS TV ‘뷰티플 라이프’ 해설 성우(남), 00.7.8. SBS TV ‘뷰티플 라이프’ 해설 성우(남), 00.7.20. K1TV ‘뉴스 네트워크’ 광주=ㄱ 기자, [관견]에 가깝게 발음했다., 00.10.11.09:50 K1TV 뉴스9 제주 뉴스 ㄱ 기자(남), 00.11.6. MBC TV ‘뉴스 데스크’ 뉴욕=ㄹ 기자(남))
- “--- 관건[관견]이 될 (것도 같은데) ---” (00.10.18. K1TV ‘뉴스 라인’ ㄱ 앵커(남), 00.11.13. K1TV 뉴스9 ㄱ 기자(여))

- ⑥ 관세사(關稅士) : “관세사[관세사] 자격증 ---” (00.4.29. K1TV 뉴스9 ㄹ 공동 앵커(남))
- ⑦ 교과서(教科書) : “교과서[교과서]” (00.5.19.09:40 K1TV 뉴스 ㄱ 기자, 00.6.11. MBC TV ‘시사 매거진 2580’ ㄷ 기자, 00.7.15. K1TV ‘취재 파일 4321’ ㄴ 기자, 이 기자는 여러 번 [교과서]라 했으나, 인터뷰(interview)에 응한 교사·학생·회사원·교육청 직원은 다 [교과서] 또는 [교:과서]라 했다. [교:과서]가 바른 발음이다. 누구 영향이 더 크겠는가? 심각한 일이다.)
“우리에게는 역사 교과서[교:과서]에나 ---” (00.9.12. K1TV 뉴스9 ㅎ 공동 앵커(기자))
“역사 교과서[교과:서]에서 활자로만 보아 왔던 ---” (00.10.1. MBC TV ‘뉴스 데스크’ 대구=ㄱ 기자)
- ⑧ 냉골(冷-): “방이 냉골[냉골]야.” (00.10.17. MBC R ‘싱글빙글 쇼’ ㄱ 공동 진행자(남), ‘냉골’은 ‘찬 방고래’를 뜻하는데 [냉:골]이 정확한 발음이다.)
- ⑨ 농방(籠房) : ‘농방’은 국어 사전에 없는 말이나, 농을 만드는 곳이니 ‘籠房’이겠다.
“윤씨 농방[농방]에서 ---” (00.5.8. MBC R ‘여성 시대’ ㄱ 공동 진행자(남))
- ⑩ 눈속임 : “눈속임[눈소깍]” (00.8.7. K1TV 뉴스9 ㄱ 공동 앵커(남), [눈소깍]이라야 한다. 잘못 된 개인 버릇 때문에 이상한 발음이 되었다.)
- ⑪ 등급(等級) : “등급[등뽈]---” (00.7.9. K1TV ‘추적 60분’ 프랑스의 약 판매 방법 보도 기자(남), 00.7.20. MBC TV ‘100분 토론’ 토론자인 ㄱ 청소년 보호 위원 · ㄱ 편집장 등. [등:급]이라야 옳다.)
- ⑫ 등기(登記) : 한 사람이 한 문단에서 ‘등기’를 [등끼, 등기] 2가지로 발음했다 (00.4.28. K1TV ‘취재 파일 4321’ ㄷ 기자). [등기]라야 옳다.
- ⑬ 문득(문득)·문득문득(문득문득) : “문득[뜩][문뜩]”(00.10.16. MBC TV ‘지금은 라디오 세상’ ㄷ 공동 진행자(여), ‘문뜩’은 ‘문득’의 센말이니, 이런 의미로 발음한 것인지 궁금하다. 이 진행자는 늘 [문뜩]이라고 하는데, ‘문뜩’이 일반적인 말이다.)
“문뜩문뜩[문뜩문뜩]” (00.4.30. EBS TV ‘철학 에세이’ ㄴ 교수(여), ‘문뜩문뜩’은 ‘문득문득’의 센말이라 [-뜩-]으로 발음했는지 모르겠으나, [문뽈문뜩]이라야 옳다. ‘문득문득’은 [문등문득]이다.)
- ⑭ 부기(浮氣) : “산후의 부기[분끼]---” (99.12.21. K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ㄴ 출연자. 부기는 浮症으로 인해 부은 상태를 말하는데, ‘붓다’에서 나온 말이 아니므로 [부기]라야 옳다. 출연 한의사는 바르게 발음하였다.)
- ⑮ 불법(不法) : “불법[不法][불뽈]으로 지어진 ---” (00.11.11. K1TV 뉴스9 ㄱ 기

자(남), ‘佛法’도 평음이다.)

⑮ **비과세(非課稅)** : “--- 비과세[비과세] 저축---” (00.10.31. K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〇 리포터(여), 어이없는 발음이다.)

⑯ **사건(事件)** : 대부분의 사전에 [사:견]으로 나오지만 경음화할 이유가 없는 말이다. 「한글학회」에는 [사:견]으로 표기되어 있다. 대부분 경음화하고 있는 현실을 따르려면 ‘표준 발음법’에 조항을 만들어 명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혼용하고들 있는 실정인데, ‘표준 발음법’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㉔ 현법, ㉕ 효과’ 참고 바람).

“**(노근리) 사건[사:견]**” (00.7.15. K1TV ‘심야 토론’ ㅅ 사회자, 00.8.25. K1TV ‘뉴스 네트워크’ 청주=앵커(남))

“**사건(事件)[사:견]**은 ---” (00.10.15. MBC TV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설 ㅅ 성우(남), 오랜만에 듣는 평음이다.)

⑰ **사랑방(舍廊房)** : “제주 사랑방[사랑:뽕]” (98 5. KBS 제주 ‘제주 사랑방’ 진행 ㅅ 아나운서(여), 억지로 풀이해보자면 [사랑뽕]은 사랑이 듬뿍 담긴 뽕인 바, [사랑방]과 뜻부터 다르다. 게다가 이 아나운서는 늘 제2음절을 길게 하여 [사랑:]으로 발음하였다. ‘사랑(愛, 舍廊)’은 단음이다.)

“**사랑방[사랑뽕] 중계**”(00.7.15. K1TV ‘TV는 내 친구’ 프로그램 예고 성우 (남))

“**한옥 사랑방[사랑뽕]과 ---**” (00.10.23. K1TV 뉴스9 ㅂ 기자)

⑱ **사법(司法)** : “--- 사법[사뽕] 침해에 대한 ---” (00.7.20. MBC TV 마감 뉴스 ㅎ 앵커(남), ‘사법(私法)[사뽕]’은 경음이지만 ‘사법(司法)[사법]’은 평음이다. ‘사법(私法)’이 [사뽕]인 실정에 대해서는 ㉔ 현법’에서 논의한다.)

㉑ **살살이** : ‘살살이’의 정확한 발음은 [삼싸치]이다(제23항). [싼사치] 같은 어이 없는 발음은 순전히 개인의 잘못된 버릇 때문이겠다. 그런데 「KBS」에는 [삼싸치], 「한글학회」에는 [-사치], 「금성」에는 [삼사치]로 나온다. 표준 발음의 정립과 사전의 바른 표기가 절실하다.

“**살살이[싼사치]** 인터넷에 ---” (00.10.7. K1TV 뉴스9 ㄱ 기자, 이런 발음은 개인의 잘못된 버릇 탓일 게다.)

㉒ **세련(洗練)** : “(류미영 단장은) 세련(세:련)된 옷차림으로 ---” (00.8.17. SBS TV 8뉴스 〇 기자)

㉓ **소나기** : “---중산간 지역에 소나기[쏘나기]가 ---” (00.7.20.17:00 MBC R 제주 뉴스 ㅎ 아나운서(남), 도무지 경음화할 까닭이 없는 말이다.)

㉔ **소주방(燒廚房)** : “(인천의) 소주방[소주뽕]에 (또 불이) ---” (00.4.19.09:50 K1TV 뉴스 ㅂ 앵커(아나운서, 여) 원래 ‘소주방’은 대궐 안의 음식을 만드는 곳

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지금은 소주를 비롯한 술을 파는 곳을 가리킨다. '사랑방(舍廊房) 처럼, '-방(房)'은 대부분 평음으로 발음한다. '문간방(門間房)[문간방], 셋방(貰房)[세:방/셀:방], 머릿방[머리방/머리방](=안방의 뒤로 달려 있는 방), 전방(廡房)[전:방](=가게, 상점) 등 몇 단어만 경음으로 발음한다.)

㉔ 안기다 : “--- 개가 안기면[안끼면] 파트너로 결정!” (00.10.15. K2TV ‘한국 이 보인다’ 목소리 출연 성우(남), 경음화할 까닭이 없는 말이다.)

㉕ -적(-的) : “-적(的)[-쩍]” (00.8.13.08:50 K1TV ‘일요 진단’ 사회 ㄱ 해설 위원, 출연한 보사부 장관과 민간 단체 〇 국장(?) 등. ‘-적’을 평음으로 발음해야 하는 말도 거의 모든 말을 경음으로 발음하였다. 말하자면 ‘근본적(根本的)’을 [근본쩍]이라고 하는 식이다.)
“막내 동생이 그 일을 전문적[전문쩍]으로 한다.” (00.9.19. K2TV ‘인간 극장’ 해설 ㄱ 연극인(여))

㉖ 창고(倉庫) : “--- (농장의) 창고[창꼬]에서 발견된 것은 ---” (00.8.11 K1TV ‘VJ 특공대’ 해설 〇 아나운서(여), 이 아나운서는 비교적 발음이 정확한데도 잘못된 언어 습관이 몇 가지 있어서 아쉽다.)
“**(강풍에)** 창고[창꼬] 지붕이 날아가는[날라가는] 등 ---” (00.9.1. K1TV 뉴스9 제주 뉴스 ㄱ 기자, [날라가는]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재해 대책 협의회가)** 창고[창꼬] 부지로 매입한 ---” (00.9.28. K2TV ‘뉴스 투데이’ ㄱ(ㄴ(?)) 기자(남), 같은 날 K1TV 뉴스9 〇 기자는 [창꼬]로 바르게 발음하였다.)

㉗ 체증(滯症) : “(고속 도로가) 체증[체쑹]을 빙고 있습니다.” (00.7.17 K1TV 뉴스 9 ㅎ 공동 앵커(여), [체증]이라야 한다.)
“--- 체증[체쑹]을 빙기도 했습니다.” (00.8.25. K1TV ‘뉴스 네트워크’ 공동 앵커 〇 아나운서(여))
“--- 늦은 시간인데도 체증[체쑹]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00.9.13. K1TV 뉴스9 ㅎ 공동 앵커(여))
“--- 교통 체증[체쑹]은 계속되고 ---” (00.9.21. K2TV ‘뉴스 투데이’ 〇 기자)

㉘ 피아골 : “이강천 감독의 영화 ‘피아골[피아골] ---” (00.4.27. K1TV ‘뉴스 라인’ 전주=〇 기자, 경음화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현지 주민들은 거의 [피아골]이라고 하지만, 남도 발음의 한 특징이다. ‘피아골’은 지리산의 계곡 이름이다.)

㉙ 헌법(憲法) :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제28항). ‘눈-동자[눈똥자], 문-고리[문꼬리], 바람-결[바람결], 산-새[산새], 창-살[창쌀]’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그런데 ‘헌법’은 ‘헌-법’으로 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라 할 수 있을지가 논의의 초점이다. 현행 사전은 ‘공법(公法), 민법, 사법(私法), 상법, 형법’ 등을, 모두 [-뺨]을 읊은 발음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경음화할 근거가 없다. 그러면 ‘사법(司法)’은 왜 평음인가? ‘국제-법[국제뺨]’의 경우와 또 다르다. 마찬가지로 ‘사건(事件)’ 또한 경음화할 이유가 없다. 필자가 지적하는 것은, 현실음을 존중하여 조항을 좀더 보완하고 이에 따라 사전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국어연구원	한글학회	KBS	백 산	민 중	동 아	금 성	비고(바른 발음)
헌법(憲法)	헌:뺨	〃	〃	〃	〃	〃	〃	헌:법

㉞ **효과(效果)** : 정확한 발음은 [효:과](「국어연구원」, 「한글학회」([효:과:]), 「민중」 등)라야 하지만 [효:과]로 나온 사전(「KBS」, 「새 우리말 큰사전」(신기철·신용철, 금성출판사, 1988(제8판))도 있다. 이견이 있지만, [효:과]를 굳이 경음화시킬 이유나 근거가 없다. 대부분의 사전(「한글학회」 제외)에 ‘사건’을 [사:견]으로 경음화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견]과 [효:과]는 무슨 근거로 경음과 평음으로 나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현행 발음법으로는 둘 다 평음으로 즉 [사:견], [효:과]로 발음해야 옳다. 경음이 현실음이라면 이를 발음법에 명시해야 하고 그 후에 사전도 이에 따라야 할 것이다. ‘성과(成果)’는 [성과]이다. 이러니 우리말 발음이 좀 어려운가?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든 셈이다. 방송에서도 두 가지 발음을 자의로 혼용하고 있는 딱한 실정이다.

“--- 환율(환율)이 십 원 인상되면 기름값이 이십 원 인상되는 효과(효과)가 있어---” (97.11.10.16:50 MBC TV ‘MBC 뉴스 센터’ (제주 지역 뉴스) 아나운서(여), 어쨌든 ‘효’는 장음이라야 한다. 기자가 쓴 기사를 읽은 것이겠지만, 결과적으로 기름값이 인상되는 것은 ‘효과’가 아니고 ‘영향’이다. ‘효과’는 ‘보람이 있는 결과’를 말한다. 이 점은 별고에서 논한다.)

“(은주 밀감의) 항암 효과(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98.6.1.15:00 MBC R 제주 뉴스 ㄱ 아나운서(남), ‘기대되고 있습니다’는 ‘기대됩니다’가 더 바람직한 말이다.)

“원숭이 효과(효과)” (99.11.11. MBC R ‘지금은 라디오 시대’ ㄱ 공동 진행자(남))
 “--- 좋은 효과(효과)를 얻었습니다.” (00.7.8. K1TV 뉴스9 ㄱ 기자, ‘효과’를 써야 하는 좋은 예인데, 다른 말은 오류가 있었으나 ‘못 이루는’을 [못 이루는]으로 읽는 그릇된 버릇) [효:과]는 경음화하지 않아 반가웠다., 00.10.17.

KITV 뉴스9 ㄱ 기자(남)

“--- 일석이조의 효과[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00.10.17. KITV '뉴스 네트워크' 춘천=앵커(남)와 ㄱ 기자(남), [효:과]는 바람직한 발음이다. 중간에 '절약[節約][저략]'도 바르게 발음했다. 그리고 '一石二鳥' 보다는 '一舉兩得'이 더 좋은 말이다.)

2) 그릇된 평음화

전반적으로 경음보다 평음이 품위 있다고 오해하는 풍조가 있는 듯하다. 가령 '홀대(忽待)'는 '제26항'에 의거, [홀때]라야 옳다. 사전마다 [홀때]라 하는데도 가끔 [홀대]라는 발음을 들을 수 있으니, 그릇된 평음화를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 이제 방송에서 자주 접하는 말을 몇 개 예시한다.

- ① **갯벌** : “--- 갯벌[갯벌]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00.5.25. KITV 뉴스9 ㅎ 공동 앵커(여), '터 잃은 도요새'에 대한 보도이므로 '개펄'이 더 정확한 말이지만, 여하튼 '갯벌'의 발음은 [갯벨/개벨]이라야 옳다. '갯벌, 개펄' 문제는 별도로 논하겠다.)
 “(습지 보호를 위한) 갯벌[갯벌] 보호 ---” (00.7.13. KITV 뉴스9 ㅎ 공동 앵커(여)와 ㅂ 기자(남), 위와 같은 예다.)
- ② **골동품(骨董品)** : “저게 돈 되는 골동품[골동품]이라면 ---” (00.10.13. MBC R '싱글빙글 쇼' ㄱ 공동 진행자(남), [골똥품]이 옳은 발음이다.)
- ③ **김밥** : '국밥'을 [국뻬]으로 발음하듯이, 김밥은 [김:뻬]이 맞다('표준 발음법' 제23항)¹⁰⁾.
 “김밥”(00.5.9. MBC R '지금은 라디오 시대' ㅎ 공동 진행자(남)는 [김밥], ㅎ 공동 진행자(여)는 [김뻬]과 [김뻬]을 혼용하였다. 00.7.19.에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ㅎ·ㄷ 씨 둘 다 [김:뻬]이라 하였다. [김:뻬]이 정확한 발음이다.)

10) 「국어연구원, 「한글학회, 「백산, 「민중, 「국어대사전, 「동아, 「새 우리말 큰사전, (신기철·신용철, 금성출판사, 1988(제8판)), 「그랜드 국어사전, (금성출판사, 1996. 초판 제4쇄) 등 대부분의 사전이 [김:뻬]이라 하고 있다. 반면 「KBS, 「민중, 「엡센스 國語辭典, 「금성판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6. 제2판 제1쇄) 등은 [김뻬]으로 표기하고 있다. 무슨 근거로 그랬는지는 모르나 심지어 [-/뻬]으로 표기한 사전도 있다(「엡센스 國語辭典, (제4판, 민중서림, 1999).

이 글을 교정하는 중에 접한 보도(00.12.27.)에 의하면, 00.8.~11.의 방송을 조사한 「공중파 방송의 언어 오용 실태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보고서에도 [김밥]이 바른 발음이라고 지적하였다 한다. 필자가 원문을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사실이라면 이는 잘못된 지적이다.

④ **늦깎이** : ‘늦깎이’의 정확한 뜻을 알고나 쓰는지 궁금하지만 이진 작가의 문제이고, 여하튼 ‘늦깎이’로 알고 쓰는 것이 아닌가 한다. 혹 원고에 ‘늦깎이’로 되어 있어도 이 정도는 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한다.

“--- 늦깎이[늘까기]로 그림을 시작했다.” (00.4.19. K1TV ‘수요 기획’ 해설 ㅂ 성우)

“(휠체어 농구단의) 김 코치는 늦깎이[늘까기] 선수였다.” (00.4.21. K1TV ‘현장 르포 제3지대’ 해설 ㅂ 성우, ‘늦깎이’가 정확한 어휘인지는 차치하고라도, 왜 이 성우는 늘 [늘까기]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매번 그런 작가를 만났는지 모르지만, 30년이 넘는 성우 경력은 어찌된 것인지 궁금하다. 그러면 ‘떡볶이’는 [떡뽕기]인가?)

“--- 불혹의 나이에 늦깎이[늘까기] 결혼식을 올렸다.” (00.6.6. K2TV ‘TV 명인전’ 해설 성우(남), 결혼식도 ‘늦깎이’로 올리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 늦깎이[늘까기] ---” (00.6.11.19:00 K1TV ‘뉴스 네트워크’ ㅈ 앵커(아나운서, 남))

⑤ **대가(代價)** : “--- 원조(援助)의 대가(代價)[대:가]로 ---” (00.10.15.23:55 MBC TV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설 ㅅ 성우(남), [대까]라야 옳다.)

⑥ **따뜻이** : “유족을 따뜻이[따드시] 보살펴 드려야 ---” (80.6.6.10:30 DBS R 현충일 기념식 중계 ㄱ 아나운서(남))

⑦ **밀도살(密屠殺)** : ‘갈등[갈똥], 발동[발똥]’에서 보듯이 [밀또살]이라야 맞다(‘표준 발음법’ 제26항: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⑧ **밥상(-床)** : “--- 아침 밥상[밥상]에서 타박을 한 아내가 부담스러웠는지 ---” (00.10.16.23:55 K1TV ‘아름다운 실버’ 해설 성우(여), [밥쌩]이라야 옳다.)

⑨ **불덩이** : “--- 해안 마을까지 불덩이[불똥]이 덮쳤습니다.” (00.4.21. K1TV ‘취재 파일 4321’ ㅅ 기자, [불똥]이라고 해야 하는데, 너무 인위적인 발음으로 단어마다 끊어서 하는 묘한 버릇들이 있다.)

⑩ **섞이다** : “피가 섞였네[써견네], 살이 섞였네[써견네]?” (00.4.25. K2TV 극 ‘바보 같은 사랑’ 주연 탤런트(남), 왜 [서견네]고 제대로 못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말에 대한 기초적 훈련이 부족한 탓일 것이다.)

⑪ **신기(神氣)** : ‘바람기(-氣), 장난기(-氣)’ 등은 [-끼]이지만 ‘신기(神氣)’는 평음이라야 한다. ‘神技, 神奇, 神氣, 神器, 神機’ 모두 평음이다.
“신기[신끼]가 있는 ---” (00.9.13. SBS TV ‘이경실 이성미의 진실 게임 베스트’ 해설 성우(남))

⑫ **쌈밥** : “쌈밥[쌈뽕]” (00.8.7. K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공동 진행 ㄹ 아나운

서(남), 00.11.25. 제주 MBC R '2000 서울은행 FA 컵 축구 대회' 예고 ○ 아나운서(남), '김밥' 처럼, '쌈밥' 은 [쌈뽵]이러야 정확하다(「표준 발음법」 제23항)¹¹⁾)

“오늘 점심은 쌈밥[쌈뽵] 어때?”(00.12.11.19:00 MBC TV 농림부 공동 주관 MBC 캠페인 성우(목소리 출연, 여))

⑬ **안간힘** : 참으려 해도 저절로 자꾸 나오는 '간힘(내쉬는 숨을 억지로 참아 고통을 이기려고 애쓰는 힘)' 이 '안간힘' 이니 '간' 을 경음으로 발음해야 하는데, 평음으로 해야 품위 있게 들린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듯싶다.

“--- 회복을 위해 안간힘[안간힘]을 쓰는 ---” (00.9.6. K1TV '뉴스 네트워크' 공동 진행(임시) ㄱ 아나운서(남))은 오랜만에 듣는 바른 발음이라 반가웠다.

“--- 안간힘[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00.4.14. MBC TV 'MBC 스페셜' 해설 ○ 아나운서, 00.7.11. K1TV 뉴스9 ㄱ 기자)

“주민들이 안간힘[안간힘]을 다해 ---” (00.7.23. MBC '뉴스 특보' ㅎ 기자)

“안간힘[안 간 힘]을 다해 기여가는 ---” (00.8.17. K1TV '현장 르포 제3지대' 해설 ㅂ 성우, [안 간 힘]으로 한 자씩 끊어 읽었다. 중견 성우가 이 정도이니 예삿일이 아니다.)

⑭ **윤기(潤氣)** : “(피부를) 윤기[윤기] 있게 만들어 준다고 ---” (00.10.29.22:05 MBC TV '사사 매거진 2580' 피부 마사지 기계의 부작용 보도 ㄱ(ㅂ(?))기자(남), [윤:끼]라야 옳다. [윤기]는 '倫紀' 를 말한다.)

⑮ **인기척(人-)** : '사람의 기척' 인 '인기척' 도 경음인 [인끼척]으로 발음해야 한다.

⑯ **일단락(一段落)** : 사전마다 발음 표기가 다른 실정인 '일단락' 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른 글¹²⁾에서 자세히 서술한 바 있다. [일팔락]이든 [일판낙]이든, [말/판]을 평음으로 발음하면 틀린다.

“수사는 일단락[일달락]되었다.” (99.12.30. K1TV 'KBS 뉴스 라인' ㄱ 앵커)

“(현대 사태는) 일단락[일달락] 되게--” (00.5.31. K2TV '뉴스 투데이' ㅂ 기자)

⑰ **장기(長枝)** : [장(:)기]라고 발음하는 경우를 자주 듣는데 [장끼]라야 한다. 언어 생활은 습관이기 때문에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00.5.6. K2TV '제70회 춘향제' 공동 진행 ○ 아나운서와 00.5.20. K2TV '오늘은 토요일' 진행 ㄱ 개그맨은 [장(:)끼]로 발음하여 좋았으나, '장' 은 단음이라야 하니 더 짧게 발음해야 한다.

11) 유일하게 '쌈뽵' 이 표제어로 나오는 「국어연구원」은 [쌈뽵]으로 표기하였다.

12) Ibid. '동화' 항.

- ⑱ **짧기** : “(장관의) 임기가 짧기는[짧기는] ---” (00.7.18. MBC TV ‘PD수첩’
 ㄹ PD, 오랜만에 겹자음을 정확히 발음하는 것을 들었으나, [짧끼]는이러야 옳다.)
- ⑲ **-적(的)** : ‘-적’을 [쩍]으로 발음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공적(公的)[공적] 자금 ---” (00.11.12. K1TV 뉴스9 ㄱ 기자(남), [공적]은 ‘公
 賊, 公敵, 功績, 空寂’이다.)

IV. 結 論

현행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제1항). 그런데 지금까지 본 대로, ‘표준 발음법’에 치밀하지 못한 점이 적지 않고 일관성이 부족해 혼란을 야기하는 점도 많다. 개개의 단어를 사정한다는 것은 무책임하거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표준 발음법’ 조항을 좀더 자세하게 하고 예시 단어도 보완하여 논란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그리고 외래어 발음에 대한 명시적 규정(예시)을 두어 이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 바람직하기는 ‘표준 발음법’만 충분히 공부하면 발음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데, 두꺼운 해설서를 보고도 헛갈리는 실정이나 일차적으로 발음법에 큰 문제가 있다. 우리말글이 어려운 것은, 국어의 체계에도 있지만, 무엇보다 허술한 어문 규정과 권위 있는 사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여기에 언론 매체 종사자와 지식인의 무관심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언어란 남들 쓰는 대로 따라 해야 하는 것이니, 사소한(?) 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식의, 지극히 표피적인 사고가 지식인 사이에 만연하고 있는 상황은 참으로 걱정스럽다. 우리말글의 길잡이인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명감을 지니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는 지식인과 교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제작 뿐 아니라 보도까지 하는 PD와 방송 기사는 특히 늘 우리말에 관심을 가지고 틀린 부분을 고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나운서들도 정확한 우리말을 구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드라마 PD는 자신의 노력이나 의식의 전환도 필요하지만, 출연자의 발음이 틀렸을 때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그 장면을 다시 촬영해야 한다는 바람이다. 무분별한, 가수들의 이른바 ‘토크쇼’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구성 작가 뿐 아니라 드라마 작가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원고를 보고 읽는 해설자(성우, 아나운서 등)나 극에 출연한 탤런트의 영향이 지대하므로, 이들에 대해 지속적인 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리포

터를 비롯한 출연자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경비 때문인지 방송 전문인보다 리포터를 많이 쓰는 풍조도 바뀌어야 한다. 언어 훈련을 받지 않은 연예인은 말할 나위도 없다. BBC 발음국은 출연자들의 선정에도 관여를 한다고 들었다. 방송 출연자는 바른 발음과 정확한 어휘를 구사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당연히 출연을 삼가야 한다.

오래전부터 방송을 보거나 들으면, 틀린 발음과 어휘에 신경이 곤두서고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다. 우리말에 관심이 없고 규준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작금의 언어 생활을 보이기 위해 이 글에서는 번거롭지만 구체적인 실례를 들었다. 라디오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도, 필자 사정으로 검토하지 못해 아쉽다. 오랫동안 주의 깊게 방송을 들어 온 필자의 결론은, 우리말글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틀린 점을 이 글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그나마 비교적 발음이 정확한 방송인을 몇 볼 수 있어서 반가웠다.

연음하지 않고 무조건 단어 혹은 글자마다 끊어 읽어 마치 외국어를 읽는 듯한 묘한 풍조가 만연해 있는 점은 정말 안타깝다. 가령 '낮 한때'는 [남 한때]로 발음하는 것을 자주 듣는데, [나탄때]라야 옳다. '웃 한 벌[오탄벌], 꽃 한 송이[포탄송이]'의 예와 같다(제12항 붙임2). 심지어 '가슴 아픈[가슴/아픈], 승리[승리]'라고 또박또박 말하는 기자도 있었다. [가스마픈], [승니]라는 자연스러운 우리말은 어디 갔는가? 격음화(ㄱ+ㅎ=ㅋ 식의)를 하지 않는 말버릇 또한 바로 고쳐야 한다. 의식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방송에서는 억양이 대단히 중요한데 억양이 자연스럽지 않고 인위적인 방송인이 너무 많았으며, 고저 장단에 대해서는 아예 무관심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방송 전에 원고에 미리 고저장단음을 비롯한 정확한 발음 표시를 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구체적으로 논하겠다.

어린이에게 끼칠 영향을 고려할 때, 특히 어린이 프로그램에서는 바른 발음이 더욱 절실하다. 어린이 프로그램 출연자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해야 하고 특별한 노력과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방송 종사자와 방송 출연자의 우리말글에 대한 인식 전환과 관심이다. 이걸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방송 기자, PD, 리포터, 연예인, 전문가(예컨대 토론 프로그램의 출연자) 등을 선발하고 출연시킬 때 카메라 테스트보다 정확한 발음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인사 고과나 출연료에도 이 점을 반영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자막 표기 또한 철저한 검증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바른 우리말글을 쓸 줄 모르면서 방송을 한다는 것은(시)청자를 모욕하는 일이요, 자기 직업에 대한 모독이다. 나아가, 공직에 취임

하는 사람도 반드시 언어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하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일 본보다 (저축률이) 높아요? 저희 나라가?” (00.11.1. MBC R ‘제주 비전 열린 이야기’ ㄹ 공동 진행자(아나운서, 남)), “(제가) 너무도 가슴 아픈 것 같아요” (00.11.6.19:40 제주 MBC TV ‘생방송 제주 토크’ 공동 진행 ㄹ 아나운서(여)) 처럼, 틀리거나 어색한 말(이를테면 ‘굉장히 (좋다), 기반(基盤)하다, 너무 (예쁘다), (한국인이 미국으로) 들어가다, ---라고¹³, (물을) 먹다, 민초(民草), 바라지고(望) 있다, 바탕하다, 보다 (높이), 보아지다, 본인(本人), 부락(部落), 소개시키다¹⁴, ---에 있어서 의, 女性스럽다¹⁵, 예상되고 있습니다, 있음으로 해서, 자리매김하다, 저희 나라, 전세(傳賈) 가격, 전셋(傳賃)값, 전향적(前向的), 제 부인이 ---, 제 자녀가 ---, (최대한으로) 줄이다, 지속 가능한, 최대한으로 줄이다, (외국과) 틀리다¹⁶, ---하는 데 있어서, --- 함으로 인해서, (도로) 확·포장’ 등등)을 방송 종사자들이 일반인보다 더 빈번하게 써서 우리말글을 오도하는 바가 너무 크다. “맛이 어떨라나?”(00.7.1. K1TV

- 13) 특히 ‘---라고’ 같은 이상한 말버릇은 빨리 고쳐야 한다(“언어란 --- 전달 체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99.1.10. EBS TV 한국방송대학교 국어학 강의 교수(여), “이데아는 객 관적으로 존재한다라고 ---, --- 만남은 있다라고 ---, --- 왔다라고 ---,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 (인간의 감성과 열정과 욕망에) 억압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 (00.4.30., 00.7.9. EBS TV ‘철학 에세이’ ㄹ 교수(여))), “나이가 들면 추억을 먹고 산 다라는 말이 있죠.” (00.3.30. MBC R ‘싱글빙글 쇼’ 공동 진행 ㄹ 씨(여)), “동일한 내용의 석 장의 유서를 쓴다라는 것은 ---, --- 이번 경우에 유족이 없다라는 것을---” (00.3.30. K2TV ‘추적 60분’ ㄹ PD(기자(?))), “종교는 자신의 --- 문화다.”라고 말했습니다.” (00.5.16. MBC TV 마감 뉴스 도쿄=비 기자) “---했다라고, --- 시기가 있다라고, 그런 관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00.10.4. K1TV ‘길종섭의 쟁점 토론’ 토론자인 ㄹ 대학 ㄹ 교수) 등 이상한 풍조가 너무나 만연해 있다. 직접 인용절에 ‘-라고’가 쓰일 수 있으나 전통적인 쓰임이 아니며 품위도 없다. “인용’이랄 것도 없는, 단순한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표현할 때에 ‘~다라고’, ‘~다라는’ 따위로 표현해서 듣는 사람을 역겹게 한다.” (이수열, “해괴하게 쓰는 인용 조사 ‘라고, 라는’, 한국교원기자회, [말과 글], VOL. 71(1997. 여름號))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라고’, ‘-고’, ‘- 하고’의 바람직한 쓰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문하겠다.
- 14) “(정종택 씨가) 린다 김을 소개시켜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0.5.2. MBC TV ‘뉴스 데스크’ ㄹ 기자)
- 15) “일본스러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00.4.21. K1TV ‘취재 파일 4321’ ㄹ 기자)처럼 ‘-스 럽다’가 아무 때나 남용되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 16) “어머! 찌개 맛이 확 틀리네!”(99.11.3. MBC R ㄹ 고추장 선전), “--- ㄹ생수기라 틀리 네” (00.4.21. K1TV ㄹ 생수기 선전, ㄹ 가수)의 경우는,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분하지 못 해 자기 회사 고추장은 맞게 하지 못하고 맛을 틀리게 하고 생수기는 맞지 않은 것이라고 널 리 알리는 꼴이 되었다. 광고 심의는 ‘웃을 얼마나 벗(입)었는가 만 보는가? (제주에 가 보 니) 공기층이 틀려요.” (00.4.15. K2TV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리포터(여))는 더하다. 제주의 공기는 틀리고 다른 지역의 공기는 맞다는 말인가? 더구나 ‘공기층(空氣層)’은, ‘보온을 위하여 건물 벽이나 천장 속에 두는 빈 층’을 뜻하는 북한말이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공동 진행 ㅈ 아나운서(여)같은 예는, 방송에서 너무 긴장이 풀어진 탓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바른 우리말을 위해서는 소위 지식인과 언론 종사자의 각성과 노력이 절실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방송 종사자들에게 대한 재교육 또한 시급하다. 이 글에서 든 예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외국어와 외래어를 혼동하는 데 따른 발음의 혼란과 외국(래)어의 남용 또한 문제이다. ‘사실’ 대신 ‘팩트(fact)’ (00.9.28. MBC TV ‘100분 토론’ 토론자들 중)라야 더 유식해 보이고 뜻 전달이 잘 된다고 오해하는 듯하다. ‘학교II’ (99.12.19. K1TV 극 예고 아나운서)는 꼭 [학교 투:]로 읽어야 하는가? “케이비:에스(KBS) 원투:(1, 2)” (00.12.19 MBC R ‘두 시의 취재 현장’ ㄱ 기자(여))는 바르게 읽은 것인가? 이른바 지식인과 방송인이 오도하고 있는 이런 풍조는 참으로 빨리 고쳐야 할 일이다. 바른 외래어 발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말의 발음 정립이 시급하다¹⁷⁾. 가능한 한 발음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방송에서는 이를 지켜야 한다. “12·12[시비 시비] 쿠데타 이후---” (00.8.6. MBC TV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설 ㅅ 성우)처럼, ‘12·12’ 만 따로 [시비 일리]가 아닌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그 다음 ‘외래어 표기법’을 보완하고 이를 널리 홍보·교육해야 한다. ‘慣用’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도 신중히 재고해야 한다. 외래어의 발음 문제는 별도로 논하겠다.

오랫동안 조사해서 힘들여 쓴 글이므로, 이 글에서 적시한 구체적인 용례는 우리말글 사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글의 성격상, 비교적 정확한 발음을 구사한 경우를 치켜세우지 못해 아쉽다.

첨언하면, 일선에서 학생을 직접 대하는 초·중·고 교사의 우리말글은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니 그 책임 또한 크다. 이들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 틀린 어휘로 인한 발음의 오류와 외래어의 발음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급하겠다.

바른 생각은 바른 언어 생활에서 나온다. 이를 선도할 사람은 언론 종사자들이다. 따라서 필자는 계속해서 방송과 신문의 문장 등 언론 매체의 우리말글 오용에 대해 논하겠다. 나아가 일반인에게 영향이 지대한 대중 문화의 우리말글 오용도 검토하겠다.

올바른 말글 생활은 올바른 삶의 출발점이다.

17) ‘노근리, 선릉, 학여울’ 등의 발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주 1). ‘동화’ 항).

참 고 문 헌

- 국립국어연구원, 「표준 국어대사전」, (주)두산 동아, 1999.
- 국어국문학회,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2000.
- 신기철 · 신용철, 「새 우리말 큰사전」, 금성출판사, 1988(제8판).
- 윤희영언어연구소 편, 「그랜드 국어사전」, 금성출판사, 1996(초판 제4쇄).
- 편, 「금성판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6(제2판 제1쇄).
- 이은정, 「우리말 발음사전」, 백산출판사, 1992.
- 편집국 편,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1.
- 편집국 편, 「뉴에이스 국어사전」(혁신판), 금성출판사, 1995.
- 편집국 편, 「새 국어사전」(개정판 3쇄), 동아출판사, 1996.
- 편집국 편, 「새 국어사전」(제4판 1쇄), (주)두산 동아, 2000.
- 편집국 편, 「옛센스 國語辭典」(수정판 제1쇄), 민중서림, 1991.
- 편집국 편, 「옛센스 國語辭典」(제4판), 민중서림, 1991.
- 한국방송공사(KBS), 「표준 한국어발음대사전」, 어문각, 1999.
-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1991.
-
- 이수열, “해괴하게 쓰는 인용 조사 ‘라고, 라는’”, 한국교열기사회, 「말과 글」, VOL. 71(1997. 여름號).
- 許 椿, “放送 言語의 諸問題-發音의 混亂相”, 「인문학 연구」 제6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